Weekly 공감

2012.05.16 NO.159
gonggam.korea.kr

2012 여수세계박람회
EXPO 2012 YEOSU KOREA
5.12~8.12

기획특집

'교육은 밥상머리부터' 학교폭력 미리 막는다 P21~37

'밥상머리'에서 인성이 나온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교직에 들어선 지 28년 만에 어렵게 배운 한 가지는 어떤 망나니짓을 한 아이라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한 신문사가 시행한 교단체험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수기에 담긴 말이다. 우리 모두가 마음에 담을 만한 내용이다.

2월 초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학교현장은 숨 가쁘게 달려왔다. 복수담임제, 체육수업시수 확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 등으로 업무분장과 수업시수가 바뀌었고, 새로운 학생부를 작성하느라 어려움도 컸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원은 학교폭력으로 더는 우리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괴로워해서는 안된다는 열정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해왔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개인, 가정, 사회, 학교, 정부 정책적 요인 등 너무나 다양하다.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와 교사는 무엇을 했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내 탓이오'라는 공동문제 인식을 갖는 자세가 요구되는 이유다. 학생교육을 책임진 교직사회는 깊이 자성하고 노력을 다짐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의 힘만으로는 어렵기에 정부와 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학교·사회·정부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인성교육 실천, 학생 생명 및 학교 살리기 범국민 운동'을 제안한다. 심각한 교육 병리현상 극복과 약화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계가 솔선수범하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학교폭력은 근절되고 학교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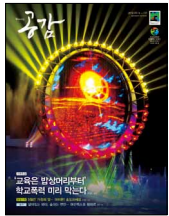
'밥상머리 교육'이 가정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은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며 자란다. 이제 '내 아이만 아니면 된다'는 자기 자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을 배려하고 선생님의 생활지도를 따르도록 가정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은 가정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른바 '밥상머리 교육'이 가정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은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며 자란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무장해 정보접근성도 뛰어나다. 그런 이유로 더불어 사는 지혜가 부족하고,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권리를 내세우는 데 익숙하다. 특히 자기분노 조절능력이 떨어져 돌발적인 행동을 하거나 친구를 괴롭히고도 이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점을 감안해 '내 아이만 아니면 된다'는 자기 자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을 배려하고 선생님의 생활지도를 따르도록 하는 가정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은 가정에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이 필요하다. 과거 정부에서도 학교폭력과 관련해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현장성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정책 자체가 흐지부지되기도 했다. 이러한 실패한 전철을 더는 밟아서는 안된다. 학교폭력은 불치병이 아닌 난치병이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숨기지 말고 미루지 말고, 끝까지 학교폭력 근절에 함께 나서야 한다. G

Contents

159호
2012.05.16 통권 260호

표지 이야기 |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5월 11일 화려한 전야제 겸 개막식에 이어 5월 12일 공식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엑스포에는 세계 1백4개 국가, 10개 국제기구가 참가하며, 8월 12일까지 93일 동안 열린다. 엑스포의 핵심 공간인 빅오(Big-O)에서는 최첨단 영상기기와 장비가 동원된 환상적인 멀티미디어쇼가 매일 밤 펼쳐진다. 사진·조선DB

기획특집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학교폭력이 사라집니다

가족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5월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 청소년이 학교폭력에 시달린다는 소식에 어느 해보다 가슴이 무거운 가정·청소년의 달입니다.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란 점은 청소년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합니다. 5월 청소년의 달 슬로건이 '꿈을 키우는 청소년,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 모두 나서야 합니다.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2.05.16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5월 31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국민 모두 에너지 절약에 힘썼으면

158호 '일찍 찾아온 무더위… 전력예비율 비상등'을 잘 읽었습니다. 5월 초순인데도 낮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며 후텁지근한 날씨로 불쾌지수가 높은 요즘입니다.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냉방용품들을 사용하다 보니 전력 소모량이 늘어 전력예비율에 비상이 걸린 것 같네요. 이번 무더위에는 국민 모두가 절전운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자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도한 사용보다는 아껴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도형 (29·회사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몽골 교사교류 소식 인상적

156호 공감화제 '칭기즈칸의 몽골 문자 가르치고 싶어요'를 잘 읽었습니다. 몽골 교사 20명이 두 달 동안 국내의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보조 교사로 활동한다니 반가웠습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에서 살고 있는 몽골 여성들의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몽골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몽골로 파견된 우리나라 교사들도 한국문화사절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몽골에서 한국어와 우리나라 문화를 잘 알리고 오기를 응원할게요.

박윤진 (24·회사원·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사업 기대돼

158호에서 김영준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단장의 인터뷰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최첨단 기상관측과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예방 노력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죠. 야심차게 추진하는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사업이 우리 국민들과 지구촌 가족들의 수호천사가 되어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유재범 (37·회사원·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배우 하지원씨 기사 반가워

157호에서 배우 하지원씨 기사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평소 사극과 멜로, 액션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하지원씨를 보며 연기의 폭이 넓은 좋은 배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최근 촬영 중인 드라마에선 북한 여성을, 영화에선 남한 선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을 보니 '역시 하지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배우 하지원이 아닌 극 중 배역으로만 보이는 하지원씨, 우리나라의 진정한 연기파 여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작품에선 또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실 지 궁금하네요. 앞으로도 좋은 연기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김지연 (24·학생·서울시 용산구 청파3가)

독자 인터뷰

"젊은 층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기사 기대할게요"

김종국 (25·대구 북구 구암동)

김종국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의 한 중학교에서 교생실습을 시작한 예비 교사다.

어릴 때부터 꿈꿔오던 교사에 한 발짝 다가간 요즘이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 교사로서 생각하는 바가 많다.

151호 〈위클리 공감〉 특집으로 실렸던 학교폭력 기사도 그래서 눈여겨 읽었다. "〈위클리 공감〉을 읽으며 놓치고 있던 문제들을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교사가 된다면 학생들과 '신문 교육'을 하면서 〈위클리 공감〉 기사를 활용할까 합니다."

158호 기사 중 기억에 남는 기사를 꼽아주세요.

"투르 드 코리아 특집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데 시간이 있었다면 투르 드 코리아에도 참가했을 거예요. 영국연합팀 인터뷰에도 나온 영주의 고갯길은 저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요. 선수들이 극찬하는 것을 읽으며 제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심판장 인터뷰, 참가팀 인터뷰와 화보까지 읽으면서 '다음에는 꼭 참가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앞으로 꼭 다뤘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제 또래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기사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위클리 공감〉을 들고 가면 재미있다고 읽어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기획특집으로 여러 기사가 실리지만 문화, 체육 분야의 다양한 주제도 등장하면 좋겠네요. 여름이면 록페스티벌 같은 야외공연이 많이 열리는데 공연정보도 읽을 수 있으면 해요."

공감퍼즐

도전! 2012여수세계박람회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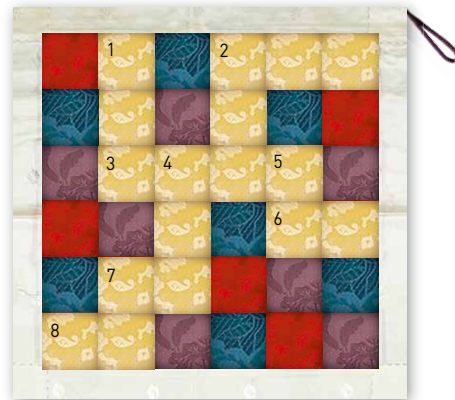
이것은 여수엑스포 4대 특화시설 중 하나로 하프 모양을 형상화한 높이 67미터의 예술조형물입니다. 이것의 외부에는 뱃고동 소리를 내는 거대한 파이프오르간 '복스 마리스'가 설치됐습니다. '복스 마리스'는 지난해 10월 세계에서 가장 큰 소리로 하모니를 만드는 파이프오르간으로 기네스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폐시멘트 저장고를 재활용해서 만든 환경 친화적 녹색성장의 상징물인 이 조형물은 무엇일까요? 힌트 : 〈위클리 공감〉 156호를 참고하세요.

퀴즈 정답과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5월 31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여수엑스포 입장권 3매를 보내드립니다.

156호 여수엑스포 퀴즈 정답 아이유
156호 여수엑스포 퀴즈 당첨자
정미선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 김준영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2동 | 이경숙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2동 | 김성민 · 충남 대전시 대천동

알림 동화로 만나는 통일 세상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통일동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학생과 기성작가를 포함한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제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며 동화형식으로 표현해서 제출하면 된다. 공모는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수상작은 동화집으로 제작해 전국 초등학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e-book과 앱으로도 제작·공급해 어린이들이 손쉽게 통일 동화를 읽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접수는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응모대상 | 제한 없음(일반, 초·중·고교생 누구나, 기성작가 포함)
응모주제 |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통일의 필요성, 통일 준비를 위한 우리의 노력, 미래 통일세상)
공모부문 | 미발표 단편 창작동화
응모일정 | 6월 22일까지
원고분량 | ① 일반부 – 2백자 원고자 40매 내외 ② 초등부 – 2백자 원고지 20매 내외 ③ 중고등부 – 2백자 원고지 30매 내외
제출방법 | ① 이메일 – unikorea@rhk.co.kr ② 우편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90 한라시그마밸리 20층 통일동화 담당자 앞
시상내역 | 최우수상 각 부문별 1명씩 통일부장관상 및 상금 등 총 48명 시상
문의 | **공모전 담당자 ☎070–8620–8808**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5월 30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2. 자신이 있다는 느낌. "OOO을 가지고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14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인간성 해방을 위한 문화혁신운동은?
6. 직위나 직급, 계급이 오름. "OO을 축하합니다."
7. 단으로 묶은 곡식이나 장작 등을 차곡차곡 쌓은 더미. 또는 더미를 세는 단위. 한 OO는 스무 단이죠.
8. 정이 많음. 정분이 두터움.

세로
1. 축하 의식이나 축제 개회 때 쓰는 트럼펫의 신호. "역사적 해양축제 여수엑스포가 화려한 OOO를 울리며 개막했다."
2. 스스로 그린 자기의 초상화.
4. 한 지점에서 길이 네 방향으로 갈라져 나간 곳. 십자로.
5. 5월 15일은 이 날이죠.
7.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1일은 입양의 날, 15일은 세계가정의 날(UN 제정), 21일은 성년의 날 · 부부의 날…, 그래서 5월을 무슨 달이라 하죠?

〈Weekly 공감〉 157호(5월 2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2 홀씨 4 살갑다 6 지출 8 새끼줄 10 거문도
세로 1 햇살 3 씨돼지 5 다래끼 7 출판도시 9 줄거리

〈Weekly 공감〉 157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정헌 · 강원도 속초시 교동
김미숙 · 전남 영광군 법성면 월산리
이상영 · 인천시 서구 가좌3동
김효정 · 제주시 외도1동
우현진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한국관 관람객들이 반구형 돔 스크린에 상영되고 있는 3D영상물을 보고 있다. 관람객들은 장면이 바뀔 때마다 "와!" 하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제1관 관람이 끝나자 한복을 입은 도우미들이 관람객들의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하며 제2관으로 이끌었다.

한국관 외관은 태극 문양과 창호 무늬로 전통미를 살렸다.

K팝 공연 스케줄 (19:30~20:30 · 빅오 해상무대)

날짜	출연 가수
6월 9일(토)	비스트, 박재범, A-pink, 비투비
6월 15일(금)	버스커버스커, 리쌍&정인
6월 19(화)	2AM, B1A4
6월 26(화)	샤이니, 인피니트
7월 5일(목)	2PM, MISS A
7월 21일(토)	슈퍼주니어, CNBLUE
8월 4일(토)	엠블랙, 에일리 등
8월 11일(토)	FT아일랜드, 제국의 아이들

자료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93일간의 대장정… 해양축제 막이 올랐다

한국관, 세계 최대 3백60도 돔 스크린… "아바타보다 강렬해요"

93일간의 문화 대향연, 여수엑스포가 개막됐다. 이번 엑스포에는 세계 1백4개 국가 10개 국제기구가 참가한다. 5월 11일 열린 전야제 겸 개막식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인사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아이유, 2NE1, 빅뱅 등 K팝 스타와 소프라노 조수미가 축하무대를 꾸몄다.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 이 대통령 내외는 개막식 공식행사 전 주제관과 한국관을 둘러봤다.

한국 고유의 태극 문양과 창호 무늬를 건물에 입힌 한국관은 승무에 심취한 여인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태극 형상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 출입구가 있는 '아라마루'에 이르니 푸른 바다와 하늘이 시야 가득 펼쳐졌다. 어디가 바다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구분이 안될 지경이었다.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장소'라는 설명이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출입구로 향하는 마음이 설렘과 기대로 출렁였다.

출입구와 직결된 제1관에 들어서자 해송이 인쇄된 여러 겹의 막이 송림처럼 드리워 있었다. 빛에 투영돼 실물처럼 보이는 이 막이 걷히면서 한 폭의 동양화 같은 다도해 풍경이 펼쳐졌다.

아쿠아리움 · 주제관과 함께 3대 인기관 꼽혀

이어 몽돌해안, 다랑이논, 죽방렴, 염전, 갯벌, 양식장, 오징어잡이 등 다채로운 한국의 해양 문화와 자연이 소개됐다. 반구대 암각화, 자산어보, 한선, 장보고, 무역선, 고지도 등 한국의 해양 역사를 실제 크기의 디오라마(실물 모형)와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제2관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잠시 후 한 줄기 빛이 섬광처럼 나타나 어둠을 삼키자 광활한 바다가 펼쳐졌다. 바다에 떠 있는 배에서는 무녀가 풍어제를 올리고, 그 한편에서는 아낙들이 신명나게 강강술래 춤을 추었다. 흥겨운 음악과 춤사위 속에서 어부는 힘차게 그물을 던졌다. 그 순간 관람객들은 깊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착각에 일제히 탄성을 터뜨렸다.

관람 시간 20분 내내 3D 영상물에 사로잡힌 관람객들은 "와, 멋지다!" "끝내준다" "영화 〈아바타〉보다 더 재미있다" 등의 감탄사를 연발했다.

5월 12일 개막과 함께 공식적으로 문을 연 한국관은 국내 최대 규모 돔 스크린으로 생생한 영상을 전달했다. 이곳은 두 번에 걸친 예행연습 때 각각 9천7백명, 1만8백명의 관람객이 몰려 아쿠아리움, 주제관과 더불어 엑스포 3대 인기 전시관으로 부상했다.

한국관의 돔 스크린은 지름 30미터, 높이 15미터, 둘레 95미터로 세계 최대 규모다. 돔 천장과 벽까지 3백60도 스크린이라 스케일이 압도적이다. 관람객들은 반구형 돔 안에서 산호와 해초, 거대한 고래와 가오리, 물고기들의 군무 등 깊은 바닷속 광경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또 바다로부터 얻는 에너지가 물 부족 등 인류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바다에서 사막, 초원까지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전시 연출을 담당한 HS애드의 최원호 PD는 "아날로그 감성과 스토리텔링이 살아 있는 공간으로 연출했고, 원조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오션파워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국관은 친환경 건축물로 설계한 에너지 자립형 전시관이다. 해수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했다. 특히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연료전지를 도입한 전시관으로는 세계 최초다.

에너지 자립… 수소연료전지 세계 첫 도입

이번 한국관의 전시 주제는 '한국의 바다정신과 해양역량'으로 '기적의 바다에서 희망의 바다로'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시 공간은 1관(기적의 바다), 2관(희망의 바다), 다목적홀, 의전센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1회 관람객 수용인원은 5백명이다.

외국인들은 한국관에서 한국 바다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제1전시관에서는 남해의 다랑이논과 죽방렴, 신안의 염전, 순천만의 갈대 등 한 폭의 동양화 같은 풍경을 감상하고, 제2전시관에서는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사막의 기적과 환태평양 시대를 열어가는 한국의 해양역량을 가늠해볼 수 있다.

엑스포 조직위 임정주 주최국전시1과장은 "한국인은 우리의 해양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외국인들은 아름다운 한국 바다에 대한 강한 매혹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12일 엑스포 개막과 함께 개관한 한국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1회 관람 시간은 20분이다. G

글 · 서철인 기자 / 사진 · 서경리 기자

오세요! 보세요! 즐기세요!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한 스물한 살 청신한 얼굴'이라 했던가. 여수의 푸른 하늘과 바다가 스물한 살의 말간 얼굴로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들어갔다. 5월 11일 화려한 전야제 겸 개막식에 이어 5월 12일 9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것이다. 하늘에서 본 박람회장은 최첨단 시설과 자연이 잘 어우러진 미래 도시를 연상시켰다.
전야제에 참석한 해외 인사들은 시설규모에 놀라고, 다도해가 펼쳐진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움에 매료됐다.
이번 여수엑스포의 주제는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으로, 인류 생존과 직결되는 바다에 관한 가장 바람직한 미래상을 함축하고 있다. 지구와 해양의 조화, 지구 생태계의 조화로운 어울림이 모티브다. 사진 · 서경리 기자

뉴시스

1

서경리 기자

2

3

연합

1 공식 개장을 하루 앞둔 5월 11일 오후 박람회장 내 빅오(Big-O) 광장에서 전야제를 겸한 개막식이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여수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있다.

2 국제관을 관통하는 긴 회랑 천장에 돔 형식의 초대형 LED 디스플레이가 설치된 엑스포 디지털갤러리. 머리 위로 깊은 바닷속 풍경이 손에 잡힐 듯 펼쳐지는 이곳에서는 '심청전' '사신기' '거문도 인어 이야기' 등의 영상물도 감상할 수 있다.

3 이명박 대통령이 여수엑스포 개막을 선언한 후 축하불꽃이 여수 밤바다를 수놓았다. 정면의 원형 구조물은 빅오의 핵심 시설인 디오(The-O)다. 수십 개의 조명과 레이저 시설, 워터제트, 화염 분출구 등이 장착된 이곳에서 환상적인 뉴미디어쇼가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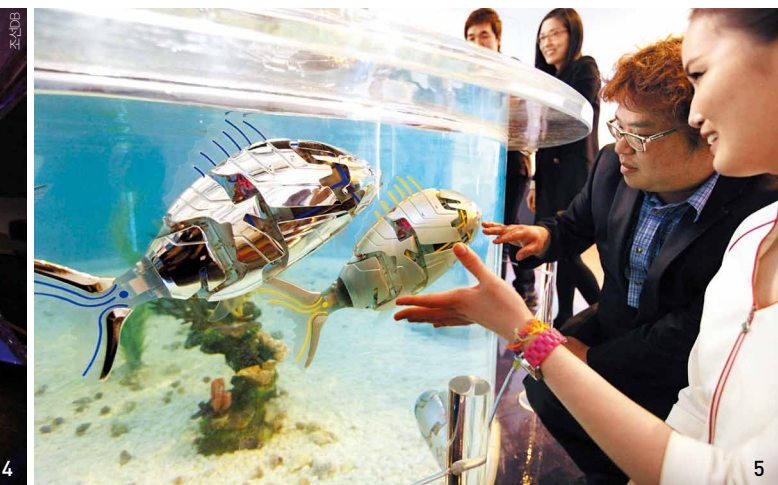
4 관람객들의 탄성이 끊이지 않는 호주관. 파도의 형상을 묘사한 대형 최첨단 멀티미디어 조형물에 호주의 동서남북 영상을 투여해 환상적인 시각효과를 선보였다.

5 이번 엑스포 전시관 중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곳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로봇전시관. 로봇 물고기 피로(FIRO)가 수족관을 유유히 헤엄치고 있다. 로봇 물고기는 실제 물고기와 비슷한 동작을 하며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조선DB

4

조선DB

5

“우리는 사회에 기여할 직업을 원합니다”

‘청년, 청와대를 만나다’ 세번째… 서울여대서 ‘여성, 두 날개를 달다’ 주제로 열려

지난 5월 8일 서울여대에서 제3회 대학생 소통 프로그램 ‘청년, 청와대를 만나다’ 행사가 개최됐다.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은 2040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2012 ‘미니’(民意) 청와대 소통 프로그램을 ‘청년, 청와대를 만나다!’와 함께 여성 직장인, 청년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소통 소사이어티’, 직장인 정책담론 ‘Hope & Hof’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여자대학의 장점이자 단점이 남자들과 부닥치는 기회가 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들끼리 모든 걸 다 해보았다는 것이 사회에 나왔을 땐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서울 노원구 서울여대 학생누리관 강당에서 이연경 아우디코리아 마케팅 총괄이사가 강연을 하는 동안 방청석을 가득 메운 3백50여 명의 서울여대 학생들은 진지하게 경청했다. 이연경 이사는 유학 한번 다녀오지 않은 ‘국내파’로, 글로벌 기업에 입사해 국내 수입차업계의 최연소 여성임원에 올라 여대생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이 이사는 “이전 회사에서 별명이 싸움닭이었다. 기죽지 않기 위한 외모 관리를 위해 블랙슈트에 쇼트커트 머리를 했다. 남자들끼리의 동지애를 느끼기 위해 담배도 경험했다”고 치열한 사회생활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이날 강연은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세대공감팀 주최로 열린 제3회 대학생 소통프로그램 ‘청년, 청와대를 만나다’의 명사 멘토링 코너였다. 서울여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의 주제는 ‘여성, 두 날개를 달다’다.

“여대 기피현상 극복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명사 멘토링이 끝난 후 준비된 영상으로 보여진 대학생들의 고민은 여러 가지였다. 여자들이 야근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다수 회사가 남자를 선호하는 것 같다, 남자들과의 협업이 힘들다고 보는 것 같다, 임신·출산 휴직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정운주 기자

싸움닭같이 치열하게! 5월 8일 서울여대 학생누리관 강당에서 열린 ‘청년, 청와대를 만나다’에 참석한 이연경 아우디코리아 마케팅 총괄이사가 서울여대 학생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도전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 열린 토론 및 간담회에서 최민선 서울여대 총학생회장은 “지금 청년에게 취업 문제는 이전 세대보다 치열한 사회문제인데, 여대 재학생들의 고민은 더욱 특별하다”면서 ▲기업의 남자 선호 채용 관행 등과 같은 불평등한 현실 ▲직장에 진출한 여성 선배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 따른 취업 정보의 부족 ▲여성에게 장벽이 되는 학연주의 ▲여성의 지속적 사회 활동이 어려운 사회 구조 등 크게 4가지 문제를 꼽았다.

최민선씨는 “여성이 가진 조율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여대의 지속적 발전이 있어야 한다”면서 “수험생들 사이에 여대 기피 현상 등의 한계 극복을 위해 취업률 제고 방안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정책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이 서울여대 부학생회장도 “여성도 사회에 나가 당당해야 하고, 스펙쌓기 등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한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을 때 정부에선 어떤 노력을 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혜경 서울여대 인문대학 학생회장은 “우리들은 어떠한 전공이 그 직장에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스펙이 중요하다지만 대체 어느 정도의 스펙을 쌓아야 충분한지 모르겠다”고 여대 재학생으로서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으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인생에 헛삽질은 없으니 최선 다하세요”

조언도 이어졌다. 〈삽질정신〉의 저자 박신영씨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직접 경험하라’”라며 “우울해할 시간에 액션플랜을 짜고 직접 경험하면 피상적인 것 이상을 알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공모전 23관왕이 되어 대학생이 만나고 싶은 대학생 1위에 꼽히기도 했던 박씨는 “대학에 들어가 한 달간 미친 듯 영화를 찍으며 삽질을 많이 했다. 그후 영화가 아니구나 싶었지만 “인생에 있어서 헛삽질은 없었다. 대신 그것이 헛삽질인지 알 때까지 최선을 다해 해보라”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용감한 컵케이크’ 대표인 장지영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와 같은 엄마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이끌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하고픈 일을 지금 꼭 해보라. 여러분의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않도록 바꿀 수 있는 건 여러분 자신”이라고 조언했다.

김종식 아모레퍼시픽 인사팀장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평생 직업은 있어도 평생 직장은 없다”며 “첫 업무 선택 시 신중해야 한다”고 인사 담당자로서 충고했다. 신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 일자리 정책은 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생을 위한 일자리 지원정책과 여성가족부의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이 병행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은 처음에는 남녀공학을 중심으로 추진하다 최근 여대 참여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2012 ‘미니’(民意)청와대 소통 프로그램 상반기 행사

행사명	날짜	참석 대상 및 규모	지역	주제 혹은 내용
청년, 청와대를 만나다!	5월 15일	동아방송예대 1,500명	경기 안성	방송문화계 전공생, 토익 대신 다시 스크린으로
	5월 17일	제주대 1,000명	제주	함께 고민하는 지방대생의 오늘 그리고 내일
	5월 24일	전주대 1,000명	전북 전주	
	6월 7일	서울여자간호대 700명	서울 홍제동	함께 고민하는 간호대 실습생의 권익 찾기
소통 소사이어티	5월 30일	청년단체 회원 100명	수도권 및 광역시	청년창업가, 청와대를 만나다
	6월 19일			청년단체, 청와대를 만나다
	6월 27일	여성 및 관련 커뮤니티 회원 100명		하이힐을 신고 청와대와 만나다
Hope & Hof	5월 22일	인근 지역 직장인	서울 강북	정치, 정책 현안 등에 대해 정부 관계자와 담론
	6월 12일		서울 구로 디지털단지	
	6월 25일		서울 강남	
	6월 29일		대구·구미	
	7월 3일		부산	

또 이민재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은 “취업에 있어서 학교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 서울여대에 파견되어 있는 취업지원관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수림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사무관은 “서울여대도 내년에는 여대생 커리어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해달라. 이는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재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에 파견된 취업지원관 활용하세요”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활발한 질문을 들으며 꿈과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일화를 소개했다.

“어느 날 르몽드지의 20대 기자가 처칠을 찾아가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살겠느냐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80이 넘은 노재상의 답이 ‘살았던 것처럼 살겠다’였답니다. 일제 암흑기에도 해방의 희망을 잃지 않았던 도산 안창호 선생과 같은 낙관적 사고를 갖고 앤드루 카슨 박사가 말한 〈10년의 법칙〉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 때, 여러분은 처칠과 같은 말을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학생들의 다양한 고민을 듣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대학생 소통프로그램 ‘청년, 청와대를 만나다’는 다른 대학, 다른 주제로 이어진다. G

글·박경아 기자

문의 청와대 미투데이 me2day.net/thebluehouse
페이스북 www.facebook.com/CheongWaDae
트위터 twitter.com/BlueHouseKorea

5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홍릉 글로벌 녹색성장단지 조성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녹색성장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서울서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10월 국제기구 출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란 세계적 화두를 논의하는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GGGS: Global Green Growth Summit 2012)이 5월 10~11일 서울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아노테 통 키리바시공화국 대통령, 아힘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학 지구연구소장, 제러미 리프킨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등 저명 인사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과 주제발표를 했다.

환경보호와 효율적인 자원 활용,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세계 경제 발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월 10~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GGGS)'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란 세계적 화두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 서밋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주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주도해 만든 GGGI는 오는 10월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한다.

이 대통령 '홍릉에 글로벌 녹색성장단지 조성 구상' 발표

GGGS에는 아노테 통 키리바시공화국 대통령과 아힘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학 지구연구소장, 제러미 리프킨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 양수길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10일 개회식에서 '모두를 위한 녹색성장–글로벌 협력을 향한 아키텍처'라는 주제로 특별연설을 하고 '홍릉 글로벌 녹색성장단지 조성 구상'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홍릉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산업연구원(KIET) 등이 있는 우리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의 산실"이라며 "앞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만의 발전을 넘어 세계의 녹색기술과 지식, 인재양성을 선도하는 글로벌 녹색성장단지로 재창조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GGS의 핵심은 '녹색성장의 글로벌 거버넌스'다.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구촌 각국이 어떻게 공조해야 하는지를 논하는 이 토론의 문은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학 지구연구소장이 열었다. 삭스 소장은 "녹색성장은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심각한 과제"라고 했다.

그는 "기후가 변화하고 환경이 훼손되는 근본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가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여 가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해 동안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3백20억톤인데 이 중 대기 중에 유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매년 3백20만피피엠(ppm)에 달하며, 누적된 이산화탄소 양은 무려 9억피피엠이나 된다"고 말했다.

GDP 1달러마다 이산화탄소 4킬로그램 배출

삭스 소장은 "이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국내총생산(GDP) 1달러가 발생할 때마다 4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했다. "현재 세계경제는 매년 평균 4퍼센트가량 성장하고 있다. 이 속도로 계속 성장할 경우 약 18년 뒤인 2030년이면 지구촌 전체의 GDP가 현재의 2배 규모로 확장될 것이다. 인류가 지금처럼 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고 우려했다.

아노테 통 키리바시공화국 대통령은 "제프리 삭스 소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인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하는 상황에서도 녹색성장을 위한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아니아의 섬나라인 키리바시공화국은 해수면 상승으로 전 국민이 이웃나라 피지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환경 파괴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것이다.

기후·환경 변화로 2억명 생존 위협받아

통 대통령이 말을 이었다. "녹색성장을 실행하지 않는 국가에는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각국이 경제성장률을 '몇 퍼센트가 올랐다 혹은 내렸다'는 식으로 발표하는데, 훼손된 환경을 치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을 포함해 성장률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성장률은 몇 퍼센트인데 실제성장률은 몇 퍼센트'라는 식으로 발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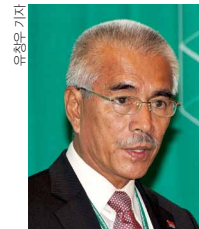
통 대통령은 "기후와 환경의 변화는 생존 자체의 문제가 됨에도 지구촌 나라들은 글로벌 거버넌스 실행을 주저한다"며 "이렇게 회의만 거듭하다 보면, 다음번 회의할 때는 키리바시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은 아마존 삼림 황폐화로 인해 고통받는 브라질로 이어졌다. 카를로스 클링크 브라질 환경부 차관은 "룰라 대통령이 2029년까지 탄소배출량을 30퍼센트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솔직히 5년 전까지만 해도 아마존이 황폐화되는 속도를 브라질이 늦출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황폐화는 막지 못했지만, 황폐화되는 속도는 줄어들고 있다"며 "브라질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해 30억달러를 지원했다. 부처 간 정책 조율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행을 맡은 아힘 슈타이너 UNEP 사무총장은 "현재 엄청난 인구가 기아로 고통받고 있지만 세계인은 외면하고 있다"며 "기아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기후와 환경의 변화"라고 말했다.

삭스 소장은 "기후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존에 위협받는 사람이 2억명이지만, 여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며 "녹색성장을 이루는 것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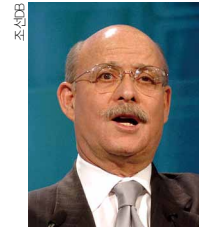
글·이범진 기자

"녹색성장이란 이상을 현실로 실천하는 한국은 세계의 모범"

아힘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다음번에 회의를 할 때엔 키리바시는 사라지고 없을 것"

아노테 통 키리바시공화국 대통령

"녹색성장은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심각한 과제"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지구연구소장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탄소 경제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를 준비해야"

제러미 리프킨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

렛위롯 코와타나 태국 왕립관개청장

"홍수 대비해 한국 기술·경험 배우고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홍수와 가뭄 등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나날이 하천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4대강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성공적 하천관리 모델로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사전협상차 한국을 찾은 렛위롯 코와타나 태국 왕립관개청장을 만나 '밖에서 본 4대강살리기'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경민 기자

렛위롯 코와타나 태국 왕립관개청장은 한국·태국 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이 수자원 관리 경험과 기술을 벤치마킹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태국 언론을 통해서 한국의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뉴스들을 보았습니다."

5월 12일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의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본사에서 만난 렛위롯 코와타나 태국 왕립관개청장은 "그동안 한국에 홍수 피해가 많았으나 4대강살리기로 홍수와 인명 피해를 줄이게 됐고, 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K-water와 같이 하천 관리를 전담하는 태국의 가장 큰 정부기구가 왕립관개청(Royal Irrigation Department)이다. 특히 농업국가인 태국에서 가장 중요한 관개용수 관리를 맡고 있다.

K-water 대전 본사에서는 이날 렛위롯 청장을 비롯한 왕립관개청 관계자들과 K-water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자원 기술 교류와 협력을 위한 한국-태국 간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사전 실무협상이 진행됐다.

K-water와 태국 왕립관개청은 2010년 말부터 홍수에 대비한 수자원관리기술 협력을 논의해왔으며, 지난해 태국이 50년 만에 한 번 오는 규모의 홍수 피해를 입게 되면서 국가 차원의 양해각서 체결로 논의가 확대됐다.

지난 3월 26~27일 서울에서 열린 2012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는 4대강살리기 관련 시설을 둘러본 뒤 조만간 양국 간 MOU를 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렛위롯 청장은 5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2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의 '물과 안보를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 분과에 패널로 참석하기도 했다. 렛위롯 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태국은 홍수로 인해 8백57억달러의 경제적 피해와 8백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고 전하면서 "지난해 홍수 당시 강수량은 연평균 강수량에 비해 43퍼센트나 높았다. 또 5건의 열대 폭풍우가 연속 태국을 강타했다"고 기상 이변이 태국 홍수의 원인임을 지적했다.

박경아 기자

5월 11일 대전 대덕구 K-water 본사에서 렛위롯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태국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홍수 이후 태국에서는 어떠한 대책들을 마련했는지요.

"대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3가지 국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을 세우는 수자원전략위원회(SCWRM)와 이러한 프레임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 위원회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됐으며,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가 도입됐습니다."

태국이 홍수가 많은 나라인가요.

"비가 많이 오지만 홍수가 자주 발생하진 않습니다. 5년 내지 10년에 한 번 정도 큰 홍수가 발생하는데 지난해 홍수는 50년 만에 한 번 있는 정도의 규모였고, 태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홍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난해 홍수의 근본원인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였습니다. 물론 홍수 대비에 기술적으로 모자란 부분도 있겠지만, 집중호우로 인해 하류로 빠져나가지 못한 물이 중부지방에 범람하며 대홍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방한을 통해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서밋 참석과 MOU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 이외에도 경인아라뱃길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이곳 대전에서 K-water의 물관리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의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중요성을 실감하겠더군요.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수자원 관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은 수자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홍수 피해가 적지 않은 나라임에도 이렇게 4대강살리기로 피해가 줄었습니다. 아주 좋은 물관리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태국 간 MOU 체결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요.

"먼저 양국이 실무자나 전문가 교류를 통해 정보와 기술력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한국의 훌륭한 수자원 관리 경험을 태국에 가져가 태국의 수자원 관리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MOU 체결은 언제쯤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실무협의가 마무리되면 제가 농업협력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다시 총리실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확실한 시기와 장소는 그때쯤 결정될 것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소감은.

"이번이 네번째 방한인데, 처음 한국에 온 것이 몇십 년 전이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전자기기, 자동차, 모바일 분야에서 뛰어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리 모습을 보면 처음 방한 당시와 너무 다릅니다."

글·박경아 기자

K-water

김건호 K-water 사장(오른쪽)과 왕루꾸이 인촨시장이 5월 4일 중국 인촨시청사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water, 중국에 하천관리 경험·기술 전수

중국 인촨시 아이허강 수계정비조성사업 공동협력 MOU 체결

한국수자원공사가 중국 인촨시 지방정부와 '아이허(愛伊河)강 수계정비 조성사업 공동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K-water 김건호 사장은 5월 4일 중국 인촨시 지방정부청사에서 왕루꾸이 인촨시장과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인촨시는 중국 북서부 사막지역에 위치하여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로, 물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 황하로부터 물길을 끌어들여 길이 1백58킬로미터의 인공하천인 아이허강을 건설한 바 있다. 인촨시는 최근 '서북지역 물의 도시'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아이허강 주변에 한국의 4대강살리기와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친수공간, 생태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촨시는 이번 사업에 한국 건설기업들의 참여도 요청하고 있어 앞으로 4대강살리기와 경인아라뱃길 사업 등의 풍부한 시공경험도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MOU는 그간 4대강살리기 등으로 축적한 국내하천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美 뉴저지주 팰팍市 시장 "전쟁과 인권 유린 가르칠 역사교재"

日의 '위안부 할머니 기림비' 철거 요구 거절

미국 뉴저지주의 소도시 팰리세이즈파크(팰팍)시가 떠들썩하다. 가로, 세로 약 1미터 남짓한 비석을 보러 한국과 일본에서 나흘 간 7명의 국회의원이 다녀갔다. 팰팍도서관 앞에 세워져 있는 '위안부 할머니 기림비(추도비)'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일본 외교관들의 팰팍시 방문이었다. 지난 5월 1일(현지시각) 히로키 시게유키 주뉴욕 일본총영사와 나가세 켄스케 부총영사는 팰팍시를 방문해 제임스 로툰도 시장을 면담했다. 그 다음날 로툰도 시장과 제이슨 김 부시장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기림비 철거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팰팍시와의 우호 증진을 위해 팰팍시에 투자를 유치하고 미·일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 등을 신설할 테니 기림비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팰팍시 측은 기림비 철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했다.

지난 6일엔 일본 자민당 소속 중의원 4명이 팰팍시를 방문했다. 자민당 내 북한의 일본인납치문제위원회에 소속된 후루야 게이지, 쓰카다 이치로, 야마타니 에리코, 다케모토 나오카즈 의원이 그들이다. 이들은 "기림비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들은 북한과 연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요구했다.

미국 사회에 '일본 위안부 문제' 재점화 계기될 듯

기림비에는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제국주의 정부 군대에 유린당한 20만여 명의 여성과 소녀들을 기린다. '위안부'로 알려진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인권 침해를 당했으며, 우리는 인류에 대한 이 잔혹한 범죄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문장이 새겨져 있다.

일본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로툰도 시장은 "위안부 기림비는 후세들에게 '전쟁과 인권 유린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 교재이므로 철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양측의 대화가 진행되면서 언성이 높아지자 팰팍시 행정관이 그 자리에서 일본외무성 홈페이지에 접속해 일본 의원들에게 보이기도 했다고

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시 시립도서관 앞에 세워져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기림비.

한다. 즉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한 부분을 직접 보여준 것이다. 이에 후루야 게이지 의원은 "그것은 과거의 입장이고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사흘 뒤 한국 국회의원들도 기림비를 찾았다. 지난 9일 김충환 새누리당 의원과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팰팍시를 방문했다. 이들은 기림비에 헌화하고 나서 로툰도 시장을 만나 일본 측의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장병완 의원은 "팰팍시의 위안부 기림비가 주목을 받으면서 기림비 건립에 대해 문의하는 시가 많다고 로툰도 시장이 말했다"고 전했다.

뉴욕한인회도 위안부 기림비 추가 건립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뉴욕한인회는 10일 기림비 앞에서 규탄성명을 발표하며, "미주 일원의 한인들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적 만행과 학살, 지금까지도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후안무치의 모습을 세계에 알려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제2, 제3의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G

글·하주희 기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항공기·선박 위험 노출… 정상운행 차질

정부, 교란전파 원천적 무력화 시스템 구축 위한 연구개발 진행

우리 항공기와 선박 등에 장착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교란신호를 받아 무력화되는 현상이 보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28일 오전 6시14분, 처음 항공기의 GPS 위성신호에 교란이 발생했다. 이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사이,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오산, 태안 등 중부지방 상공을 날거나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이착륙하는 일부 항공기에 장착된 GPS가 교란 현상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7백여 대에 가까운 항공기가 GPS 교란으로 피해를 봤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우리 국적항공기뿐만 아니라 외국 항공기와 미군 군용기도 피해를 보았다.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해경 경비함, 상선, 여객선 등도 GPS 장치가 정상작동하지 않았고, 특히 동해와 서해의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는 소형 어선들이 GPS 신호 교란으로 표류하기도 했다.

북한, 방통위 항의 서한 수령 거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교란신호를 추적한 결과 북한 개성 부근에서 신호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교란전파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2개 기관을 통해 북한에 항의했다. 또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항의 서한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보냈다. 정부는 항의 서한에 'GPS 교란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이를 즉각 중단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항의 서한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GPS 전파 교란 발생 이후 아직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조종사는 GPS를 보조장치로 활용하기 때문에 GP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관성의 변화로 이동거리를 산출하는 '관성항법장치(INS)', 지상송신국 전파로 위치를 파악하는 '전 방향 무선표지 장치' 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전파 교란이 계속 이어지면 항공기와 선박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GPS 교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GPS 교란이 발생해 항공기와 선박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GPS 교란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니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북한 측에 보냈다.

란 발생 당일인 28일 오전 9시34분부터 각 항공사에 "GPS 전파 교란에 주의하라"는 내용을 담은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했다. 선박에는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을 통해 "인천항 주변에서 GPS 미작동, 오작동에 대비하라"는 안내문자방송을 보내고 있다. 또 GPS에만 의존하는 소형 어선이 월선(越線)을 하지 않도록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조업 중인 소형 어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고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고가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의 GPS 신호를 교란하는 전파를 발신하는 상대의 전파를 원천적으로 무력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G

글·곽창렬 (조선일보 사회정책부 기자)

“美쇠고기… 모든 정보 국민에게 공개”

현지조사단 방문 결과 발표… ‘50퍼센트 검역’조치는 계속 유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월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지 조사와 전문가 검토 결과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서 장관은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12일간 미국 농무부, 국립수의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 렌더링 시설, 농장 등 관련시설을 방문해 BSE(소해면상뇌증) 발생상황, 정밀검사 상황, 사료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했다”며 “그 결과 미국의 BSE 예찰 시스템과 사료 및 식품안전조치가 국제 기준에 따라 잘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BSE가 발병한 미국 소는 해당 농장의 전자 기록 등을 통해 2001년 9월 25일 출생한 1백27개월령으로 확인됐다”며 “미국 국립수의연구소와 시료를 분석한 실험실을 방문, 늙은 소 등에서 발생하는 비정형BSE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이번 BSE 감염 소는 승인된 매립지에서 폐기처분이 됐으며, 식용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조사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김황식 국무총리도 11일 미국 BSE 대응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서 “민·관 합동조사 결과 이번 미국 BSE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힌 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이 차분하게 대응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더 이상 이 문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는 현지 조사결과 등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역강화 조치는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종민 검역정책과장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식품부는 현지조사 결과와 가축방역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해 50퍼센트 개봉해 검사

조선DB

11일 경기 광주시 냉동창고에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관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검역하고 있다.

하고 있는 현행 검역강화조치는 당분간 유지키로 결정했다”며 “또한 매년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 현지 수출작업장에 대한 정기점검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특별 단속하는 한편, 수입 쇠고기의 유통이력 관리 대상을 중간 유통업체 및 중소 식육판매업체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수입쇠고기 원산지 표시와 유통 이력 위반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G

글 · 이범진 기자

기 획 특 집

가정·학교·사회가 손잡으면 학교폭력 없앨 수 있다

가족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5월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 청소년이 학교폭력에 시달린다는 소식에 어느 해보다 가슴이 무거운 가정·청소년의 달입니다.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란 점은 청소년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합니다. 5월 청소년의 달 슬로건이 ‘꿈을 키우는 청소년,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 모두 나서야 합니다.

일러스트 · 박상훈

박경아 기자

'말할 줄 아는 용기, 우리는 용감한 학생들!' 5월 12일 서울 강동구 명일중학교 정문에 이 학교 학생이 만든 슬로건이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명일중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신고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젠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주목하자

은밀한 학교폭력 경찰 단속만으로 해결 어려워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에 다각도로 대처하고 있지만 최근 영주 중학생 자살 사건에서 보듯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드러내지 못하는 두려움, 은밀하게 자행되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단속만으로 충분치 않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신고 대표전화인 '117 학교폭력신고센터'가 실제 해결로 이어지고, 익명이 보장된다는 사실이 학생·학부모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77건에 불과하던 117신고는 올 들어 ▲1월 6백16건 ▲2월 1천1백24건 ▲3월 2천3백86건 ▲4월 3천5백9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9일 현재까지 올 들어 9천6백27건의 117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3천79건에 대해 수사가 결정되었고, 5백6건이 원스톱센터, Wee 센터 등의 연계상담으로 이어졌다.

117신고 가운데 폭행, 협박 등과 관련된 신고가 전체 신고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많았으며, 이어 '집단 따돌림' 관련, 공갈·갈취 등 경제적 폭력, 음란정보 전송 강요, 성폭력(추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17 신고센터는 지난 2005년 성폭력 신고전화로 개설됐으며, 117 신고센터는 지난 2005년 성폭력 신고전화로 개설됐으며 지난 1월 각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해오던 학교폭력 신고전화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117번호로 통합됐다.

신고 1만건 육박… 3천여 건 수사 결정

남궁숙 117센터장은 "117센터 개설 이후 학생들이 학교폭력 신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신고건수가 늘어 최근에는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의 신고까지 접수되는 등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후배 혹은 동급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금품을 빼앗는 '일진' 등 불량서클을 적발해 해체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학교폭력 전수조사에서 피해사례로 기재된 16만7천6백51건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경찰청이 4월 중순경 학생, NGO 단체, 학부모, 기자, 교사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년보다 학교폭력이 감소했다'는 대답이 43.2퍼센트로 '증가했다'는 대답(21.9퍼센트)에 비해 2배 이상 나오기도 했다.

반면, 이 설문조사에서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과 일진 등이 증가하거나 달라진 게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4월 16일 영주 중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다시금 단속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학교폭력의 사각지대에 주목할 필요가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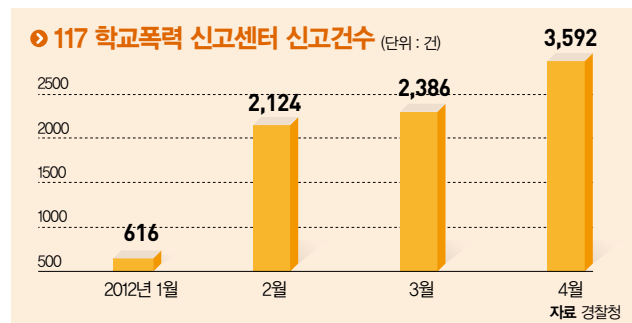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4월 23일 전국 16개 지역의 생활지도교사와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1백명을 초청해 개최한 간담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여전히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영주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이 자살 고위험 학생이었음에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조치가 미흡했고, 피해를 목격한 학생들도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는 등의 아쉬움이 있었다며 은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이들의 학교폭력 경험 부모가 모르는 경우도

내 아이가 당한 학교폭력의 실상에 대해 부모 역시 잘 모르는 실정이었다. 경찰청이 지난 2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생 9천명과 학부모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학생의 17.2퍼센트가 최근 6개월간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12.2퍼센트만이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장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예방처우연구센터장은 "학교폭력에는 종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데, 요즘 청소년 문제를 보면 부모-자녀 간의 유대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타인의 고통에 대해 감정이입이 안 되고, 타인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 센터장은 "또 청소년 범죄의 경우 공범이 있는 비율이 높다. 청소년(10세 이상 18세 미만) 비행 가운데 공범 범죄가 강·절도 등 형법범의 경우 60퍼센트에 이르고 전체 범죄를 놓고 볼 때도 절반이 넘는다"고 진단했다. 아무래도 또래끼리 행동할 때 책임이 분산되고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어 혼자 있을 때보다 나쁜 행동에 대한 유혹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래 비행의 대표적 사례가 흔히 '일진'이라고 부르는 불법 폭력서클이다.

5월 말이면 서울에 한 곳이던 117센터가 전국 17개 지방청마다 들어선다. 초기에는 21명, 현재 34명이 근무하는 117센터가 전국에서 문을 열면 2백4명의 경찰관, 공무원, 전문상담원 등이 상담에 나서게 된다. 112전화는 신속한 접수와 대응이 생명이지만, 117전화는 한번 통화하면 기본이 30, 40분이라고 한다.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향해 열린 귀가 늘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G

글·박경아 기자

올들어 117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5월 9일 현재 총 1만건에 이른다.

117 학교폭력 상담교육기관 즉시 전화하세요

117센터 | 2005년 성폭력 신고 전화로 개설됐으며, 지난 2월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정부 종합대책'에서 학교폭력신고센터로 통합됐다.
문의 ☎117

Wee | 학교와 교육청, 지역 사회가 연계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 지원 서비스망이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 외 오프라인 상담은, 재학 중인 학교에 Wee 클래스가 있으면 Wee 클래스에서, 재학 중인 학교에 Wee 클래스가 없으면 거주 지역의 Wee 센터에 신청한다. Wee 클래스나 Wee 센터는 Wee 홈페이지 내 'Wee 찾기'에서 찾는다. 문의 www.wee.or.kr

학교폭력SOS지원단(청예단) | 2007년 6월 개소한 후 학교폭력에서부터 관련 법률, 사안 처리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면접상담을 신청하면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문의 www.jikim.net, ☎1588-9128

충북청명학생교육원 | 충청북도교육청이 설립한 가해학생 우수 치유기관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심리 치유 등을 하며 가해학생의 낙오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문의 www.cbcmis.go.kr ☎043-530-5833

'멈춰 프로그램'이 교실을 바꾸고 있다

학급 친구들이 방관자에서 공동 방어자로 나서 폭력 예방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 중고등학교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초등학생들은 폭력과 장난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집단 따돌림과 폭력 문제를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 '멈춰 프로그램'에 의해 부모나 교사의 개입 없이 학생들 스스로 해결한 좋은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초등학교 6학년인 영석(가명)이는 지난해까지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같은 반이었던 민수(가명)가 이를 주도했다. 그런데 민수가 올해도 같은 반이 되어 영석이는 1년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새 담임선생님은 폭력에 대처하는 '4대 규칙'과 '멈춰'를 알려주면서 "우리 반에서는 절대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선생님의 단호한 태도에 민수도 위축되었는지 한동안은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지냈다.

사건은 선생님이 출장을 간 날 터졌다. 민수가 지난해에 했던 것처럼 영석이 의자를 앞뒤로 흔들고 연필로 머리를 탁탁 치며 시비를 걸었다.

영석이는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멈춰"를 외쳐보았지만 생각처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모기소리만한 "멈춰" 소리에 민수는 순간 멈칫했지만 "뭐, 어쩌라고" 하면서 하던 행동을 계속했다. 영석이는 주변 친구들이 모두 침묵한 채 구경만 하던 지난해 일을 떠올리곤 고개를 숙였다.

평화샘 모임서 연구결과 모아 책으로 펴내

그때, 꿈결처럼 구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멈춰, 영석이가 싫다고 하잖아."

주변에서 야구공을 가지고 놀던 철민(가명)이와 유석(가명)이가 다가와 민수를 제지했다. 그러자 교실에 있던 다른 아이들도 "뭔데, 무슨 일이야?" 하며 영석이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위축돼 있던 영석이는 친구들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이번에는 힘껏 "멈춰"를 외쳤다.

민수가 당황한 듯 "뭐, 그냥 장난이었어" 하며 상황을 얼버무리려 하자 누군가가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멈춰가 나왔으니까 회의와 역할극을 해야지"라고 말했다. 민수는 마지못해 역할극에 참여했다. 이 역할극을 통해 민수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영석이에게 "진짜 기분 나빴을 것 같아. 미안해"라며 사과를 했다.

올해 초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침묵으로 방관하던 다수의 아이들이 피해자 편에 서서 학교폭력을 해결한 경우다.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적인 청주 동주초등학교 김미자 교사는 "평화샘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는 50여 개 교실에서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평화샘 프로젝트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와 전문가들이 연구해 만든 '평화로운 교실 만들기'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평화샘 모임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두 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학교폭력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와 〈학교폭력 멈춰!〉가 그것이다.

노르웨이에선 학교폭력 50퍼센트 이상 감소

이 책에 따르면 평화샘 프로젝트는 학교폭력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북유럽 사례들을 벤치마킹한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인 것이 노르웨이의 올베우스 프로그램이다. 노르웨이에서 적용 후 학교폭력이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 이 프로그램은 폭력 예방은 물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담고 있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4대 규칙'과 '멈춰 제도', 그리고 '역할극'이다.

'4대 규칙'은 '우리는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괴롭힘당하는 친구를 도울 것이다' '우리는 혼자 있는 친구들과 함께할 것이다' '만약 누군가 괴롭힘당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학교나 집의 어른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등이다.

'멈춰 제도'는 아이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방어자가 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향해 "멈춰"라고 외치며 팔을 뻗으면 주변의 학생들도 함께 "멈춰"라고 소리치는 동시에 교사에게 이를 알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조선DB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멈춰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말 대구에서 '폭력 멈춰(STOP)' 거리 캠페인이 열렸다.

학교폭력 발생 때 부모의 대응법

우리 아이가 피해자일 때

- 징후를 파악하고 아이와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 피해를 파악하면 끝까지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 아이가 부모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
- 피해를 확인하면 당황하지 말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녹음, 진술서 등 증거 확보)
- 학교에 알려 함께 해결 방법을 찾는다.
- 심각할 경우 아이가 반대하더라도 부모의 책임하에 공개할 수도 있다.
-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친구관계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 가해자 부모에 대한 학교의 책임 있는 중재를 요청한다(가해자 부모의 사과 및 협력, 그리고 보상 문제)
- 폭력에 대처하는 가족 규칙을 만든다.

우리 아이가 가해자일 때

- 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절대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 폭력에 대처하는 가족 규칙을 만든다. 4대 규칙 중 괴롭히지 않는다는 규칙에 대한 깊은 토론을 한다.
- 가족끼리 집단 따돌림 역할극을 하여 피해자의 입장에 공감하는 힘을 기른다.
- 아이의 친구관계,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든다.
- 담임교사, 학교장,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아이를 돕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 보상에 능동적이어야 한다.

우리 아이가 방관자일 때

- 방관이 폭력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다.
- 괴롭힘의 초기 단계에서 친구들에게 "참아", "말로 하자" 등 중재할 수 있는 말을 가르친다.
- 심각한 괴롭힘 상황에서 개입하는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을 연습한다.
- 폭력에 대처하는 가족의 규칙을 만든다. 부모에게 알리는 규칙에 대한 깊은 토론을 한다.
- 따돌림당하는 아이와 함께 활동하고 노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 방어자로서의 행동이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용기를 칭찬한다.

자료 〈학교폭력 멈춰!〉

평화샘 프로젝트의 하나인 '멈춰 제도'는 그동안 충북지역 학교에서 시행돼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그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학교에서도 이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검찰청 주도로 '멈춰 프로그램'을 관내 45개 학교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7일 안양, 과천, 군포, 의왕지역 45개 중학교 교장과 학생지도교사, 범죄예방위원 등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멈춰 프로그램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G

글·서철인 기자

일주일에 두번 이상 '가족밥상'에 모여라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 청소년 비행에 빠질 확률 절반으로 줄어

미국 콜럼비아대 약물오남용예방센터(CASA)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동급생에 비해 A학점을 받는 비율이 2배 높고, 청소년 비행에 빠질 확률은 50퍼센트 감소한다"고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대는 '밥상머리 교육을 위한 실천지침 10가지'를 발표하고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가족 식사의 날을 가질 것"을 권했다.

"지호(가명)는 시쳇말로 '짱'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걸핏하면 공포 분위기를 만들곤 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함께 요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호가 음식 만드는 일에는 관심을 보였거든요. 권사님 한 분이 매주 지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만들고, 함께 맛보며,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음식과 사랑,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엔 '센 척'하느라 뻣뻣하게만 굴던 지호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부모로부터 외면받았다'면서 자기 얘기를 처음 꺼내더군요.

춘천 효자동에서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개척교회를 이끌고 있는 박태균(49) 목사는 "이후 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말했다. "가슴속에 자기 얘기를 꼭꼭 숨겨놓고 절대 표현하지 않던 아이가 스스럼없이 자기 얘기를 꺼내면서 힘들어하는 주변 아이들을 돕기 시작한 겁니다. 지호는 이후 검정고시를 치러 전문대학에 입학, 요리를 전공해 현재 요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폭력의 싹을 없애

박 목사는 "함께 음식을 만들어, 함께 먹으며,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은 곧 사랑"이라며 "가정에서도 이른바 '밥상머리 교육'만 제대로 한다면 청소년 폭력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와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가 3월 공동으로 발표한 '밥상머리 교육' 자료에 따르면 식사문화를 통한 가정교육은 다섯 가지의 효과를 갖고 있다.

첫째, 아이들이 똑똑해진다는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 캐서린 스노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만 3세 어린아이가 책을 통해서 배우는 단어는 1백40개지만, 가족 식사를 통해서 배우는 단어는 무려 1천개라고 한다. 교과부와 서울대는 공동연구를 통해 "이같은 어휘 습득교육은 훗날 고등학교의 어휘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다.

'밥상머리 교육'의 두번째 효과는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콜럼비아대 약물오남용예방센터 연구에 의하면, 가족과 식사를 자주 하지 않는 청소년은 가족과 자주 식사를 하는 청소년에 비해 흡연율 4배, 음주율은 2배, 마리화나를 피우는 비율이 2.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번째 효과는 '아이들이 예의바른 행동을 한다'는 것. 아이들은 식사를 통해 예절, 공손, 나눔, 배려, 절제를 배운다. 가족 식사는 작은 '예절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식사는 단지 먹는 것만이 아닌, 함께 준비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이들은 이를 통해 가족으로서의 유대감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나아가 행복감과 충만감을 누릴 수 있다.

네번째 효과는 아이들이 건강해진다는 것. 균형잡힌 식사를 통해 청정하고 깨끗한 몸을 만드는 것은 물론 비만과 식이장애 등을 예방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가족 모두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밥상머리 교육의 다섯번째 효과다.

'밥상머리 교육 실천지침 10가지' 발표

인천청천초등학교 오범세 전 교장은 "자녀는 부모의 의지와 욕구대로, 또는 부모의 만족을 위해 키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부만을 따지는 입시 위주, 학벌 우위의 편향된 교육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정서적 학대를 받게 된다"고 했다.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남궁기 교수는 "이루지 못할 목표에 책임지게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체벌을 한다면 좌절감, 공격성, 분노감이 생기게 된다"고 했다. "자녀와의 대화시간을 많이 갖고,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매주 수요일 저녁만이라도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총리실이 모범을 보이자"고 제안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평일 오후 6시40분경 퇴근하기 위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를 지나던 김 총리는 그 시간에도 청사 사무실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을 목격한 뒤 이같은 주문을 했다고 한다.

> **밥상머리 교육 실천지침 10가지** (식탁에 놓고 활용하세요)
>
> 1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가족 식사의 날'을 가진다.
>
> 2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식사한다.
>
> 3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정리한다.
>
> 4 TV는 끄고, 전화는 나중에 한다.
>
> 5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먹는다.
>
> 6 하루 일과를 서로 나눈다.
>
> 7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식의 열린 질문을 던진다.
>
> 8 부정적인 말은 피하고 공감과 칭찬을 많이 한다.
>
> 9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경청한다.
>
> 10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 식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
>
>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정부,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 지정

정부는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하고, 이날은 정시 퇴근해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도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과 주말을 활용해 가족이 함께 식사와 대화를 나누자는 취지의 '밥상머리 교육 범국민 캠페인'이 포함됐다.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 등은 밥상머리 교육 실천에 보다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5월 3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학부모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인 '행복한 학교를 위한 필통(必通)톡'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학교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즉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범사회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했다. G

글 · 이범진 기자

일러스트 · 신용호

가정의 빈자리 채워주니 '비행' 사라졌다

폭력학생 돌려세우기는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주는 것'이 비결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들은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경우가 많다고 한다. 폭력학생들을 교실 안으로 돌려세우는 데 성공한 교사들은 입을 모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주는 것'을 성공 비결로 꼽았다. 아래 사례는 한국교원총연합회에서 실시한 우수 생활지도 사례 공모에 수상 후보작으로 올라 있다.

서울 등마초등학교 김중환 교사

"이번 방학 동안 네 아버지가 되어주마"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5학년 1학기 시작하는 날 자기소개 시간. 영호(가명)는 '지난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로 자신을 소개했다.

쉬는 시간에 교실에 앉아 "아버지가 불쌍해, 불쌍해"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늘 찡그린 얼굴로 학교와 집을 오가던 영호는 오래지 않아 학교폭력에 연루되기 시작했다. 학생들과 다투는 것은 물론이고, 자전거 도난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의 감시까지 받았다.

여름방학이 되어 학교에서 단체로 연수를 떠났다. 여기에서 영호가 드디어 일을 저질렀다. 자신을 놀린 6학년 학생의 눈썹 밑을 부러진 우산대로 찔렀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영호의 집에 전화를 건 서울 등마초등학교 김중환 교사(당시 정목초등학교 재직)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영호가 아버지의 자살 장면과 어머니의 음독자살 시도 장면을 목격한 후로 달라졌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 부인에게 영호의 이야기를 했다. 부인은 "이번 여름방학만이라도 영호의 아버지가 되어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라"고 했다. "우리 딸들은 고등학생이라 공부에 바쁘니 방학 내내 집을 비워도 괜찮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버지 자살 후 방황하는 제자와 30일간 여행

김 교사는 서울 근교의 가볼 만한 곳을 30여 곳을 적어 영호에게 보여줬다. "이 중에 가고 싶은 곳 다섯 곳만 골라. 어디를 가고 싶니." 영호는 "다 가보고 싶다"고 했다. 차마 안 된다고 할 수 없었다.

그 다음 날부터 둘만의 여행은 시작됐다. 축구박물관, 남산한옥마을, 역사박물관, 어린이대공원, 영화관…. 다른 아이들은 주말마다 부모의 손을 잡고 여유롭게 구경했을 곳을 영호와 김 교사는 30일 동안 순례하듯 다녔다.

여의도공원에서는 어떤 꽃이 제일 예쁜지 고르는 둘만의 대화를 열고, 인근 산에 올라 땀을 뻘뻘 흘리며 네잎클로버를 찾으면서 김 교사는 영호에게 틈 날 때마다 노래를 불러줬다. "나는 영호가 좋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영호도 나를 좋아하나 봐요. 나는 영호 사랑해요." 천번쯤 불렀을까. 영호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도 나를 좋아하나 봐요. 나도 선생님 사랑해요." 그렇게 여름방학이 흘러갔다.

그 이후로 영호는 많이 달라졌다. 지금은 레슬링으로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꿈을 안고 운동을 한다. 김 교사는 "영호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느라 바빠서 자주 못 만난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5년 전 여름방학, 30일간 선생님의 손을 잡고 서울 곳곳을 누비던 아이가 이제는 전 세계를 누빌 준비를 하고 있다.

경기 평택 안중중학교 신영철 교사

"감사합니다. '거물'을 진짜 거물로 키웠습니다"

지난해 2월 어느 날, 평택 안중중학교 신영철 교사는 신입생들의 명단을 훑어보고 있었다. 유독 한 학생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경민(가명)이의 이름 아래로 출신 초등학교 교사가 쓴 편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 학생은 인터넷 과다 중독 학생으로 정서가 불안하고 결석을 수시로 하며, 절도·폭행·금품갈취·방화 등으로 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로…."

신 교사는 이런 '거물'만은 안 맡았으면…' 하며 명단을 덮었다. 그의 바람과 달리 경민이는 신 교사의 반으로 배정됐다. 신 교사는 경민이만을 위한 '상담수첩'을 만들며 다가올 1년을 준비했다.

경민이는 어떤 아이일까. 신 교사는 조심스럽게 경민이를 관찰했다. 경민이가 할머니, 아버지, 형, 그리고 이혼한 작은아버지와 사촌동생 2명, 미혼인 삼촌과 함께 22평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광고지 배포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번다는 것을 알았다.

경민이와 처음 상담했을 때, 신 교사는 경민이 눈에서 '먹이를 노리는 사자의 눈빛'을 보고 순간 섬뜩했다. 경민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예고'한 대로 급우들과 자주 다투고, 수업시간에는 졸기 일쑤인 학교생활을 이어나갔다.

반 아이들은 경민이를 멀리했다. 그런 경민이에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 신 교사가 경민이에게 맡긴 임무인 '교장실 청소 담당'을 아주 성실하게 해내는 것이었다. 교장이 여러 번 칭찬할 정도였다. 여기서 신 교사는 '희망'을 봤다.

사랑과 관심으로 '비행 청소년' 낙인 벗겨

신 교사는 매주 마지막 날 종례 후에는 아이들을 차례로 껴안으며 귓가에 "사랑한다"고 속삭여주었다. 경민이는 매번 자기 차례가 오기 전에 교실 밖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3주일이 지난 어느 점심 시간, 학교 도서관 옆 공터에서 혼자 노는 경민이를 발견한 신 교사는 그 근처에 서서 하늘을 보는 척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경민이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선생님, 뭐하세요. 일광욕하세요?" "응, 햇살이 아름답구나! 너도 선생님 옆에 서보렴." 이 5분간의 대화 이후로 신 교사는 경민이를 만나기 위해 공터를 자주 서성거렸다. 그는 "경민이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랑받는 것'을 무엇보다 원한다는 것을 이때 알았다"고 했다.

신 교사는 학급 반장을 경민이의 후견인으로 세웠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경민이와 싸우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민이의 무표정하던 얼굴에 웃음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수업 시간에 조는 빈도도 줄어들었다. 면담 후 포옹을 하며 "저도 선생님 사랑해요"라는 말도 하기 시작했다.

큰 사건 없이 1학기와 여름방학이 지나갔다. 그리고 2학기 첫 학급회의에서 반장을 뽑는 선거 시간에 일이 일어났다. 경민이가 부반장 후보로 추천됐다. 그리고 투표를 거쳐 부반장으로 뽑혔다.

이날 신 교사는 하늘을 향해 "오늘이 거물을 진짜 거물로 키운 날"이라고 외쳤다. 경민이는 독서시간 지도를 비롯한 학급 임원의 임무를 잘해냈다. 더 이상 '사전 경고'가 필요한 비행 청소년이 아니었다. 신 교사는 1년간 기록한 경민이의 상담수첩을 모두 분쇄해버렸다. 상담수첩 속 경민이는 사라지고 새로운 경민이가 태어났으니까. G

글 · 하주희 기자

일러스트 · 유재일

“정신 번쩍 드네요, 학교 가서 공부할래요”

‘고위험군’ 학생들 대상 충격요법 특별 프로그램 “효과 있다” 평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 교육당국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구치소를 견학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며 변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교칙을 어긴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자치법정을 연 학교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커졌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학생들의 의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번 구치소에 들어온 사람은 또 들어와요. 형기가 끝나 사회로 나가도 범죄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삽니다. 들어왔다 나왔다 반복하다 보면 세월이 다 흘러가요. 운동하는 한 시간을 빼놓고는 다리 뻗기도 힘든 좁은 방에서 24시간 감시를 받고 지냅니다. ‘그까짓 것 감옥에 가고 말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지난 5월 8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성동구치소에서 한 수감자가 입을 열었다. 수감자와 마주 앉은 학생들은 모두 5명.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교칙을 어기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분류돼 서울시교육청 강동 Wee센터의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원래 ‘고위험군’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는 경찰서 유치장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다. 그러나 구치소를 견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난생처음 보는 구치소의 싸늘한 정경에 학생들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다.

장난스럽게 웃던 학생들 눈빛이 달라져

“학교폭력은 ‘할 만한 일’이 아니라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오게 되는 범죄예요.” 수감자가 경고할 때마다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참가 학생 중 한 명은 “‘친구를 괴롭히지 말라’는 말을 잔소리로만 들었다”고 반성하면서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말했다. 한 학생은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며 “학교로 돌아가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조선DB

학교폭력을 없애려면 학생들의 의식도 변해야 한다. 4월 1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원인과 대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학생들이 발언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육당국은 이제 학생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교사·학부모의 노력만으로 교화하기 힘든 학생을 맡는 전문기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안해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한다. 학생들의 성격과 교화해야 할 행동의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하기도 한다.

서울시 강동교육청과 강동 Wee센터에서 함께 주관한 구치소 견학 프로그램도 이런 맥락에서 시행된 것이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는 특별 프로그램에는 미술 치료, 분노 조절 치료 등 심리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뿐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를 직접 체험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야외 활동도 포함돼 있다.

학교폭력은 습관… 커지기 전에 막아야

강동교육청 중등교육지원과 오준식 장학사는 이번 견학이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며 “Wee센터로 위탁된 학생들은 대개 문제가 심각한데 교내봉사 등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학생들과 함께 구치소를 다녀온 강동 Wee센터 관계자는 “구치소에 들어갈 때는 장난스럽게 웃던 학생들의 눈빛이 나오면서는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변에서 아무리 학교폭력이 나쁘다고 얘기해도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구치소 견학은 실질적인 효과를 낸 것 같다”고 만족해했다.

“학교폭력 학생자치법정 긍정적이다”

가해·피해학생 모두 이해… 소통효과 커

“동급생을 위협해 물품을 갈취하고 괴롭힌 ‘나일진’ 학생에게 교내봉사 10시간, 사회봉사 10시간을 선고합니다. 또 나일진 학생은 학교폭력 관련 형사 법정에 참관해 소감문을 써내세요.”

5월 8일 서울 중구 신당동 장원중학교에서 학생자치법정이 열렸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학생들이 직접 결정하는 자리다. 비록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됐지만 학생 21명이 검사·증인·변호사 역할을 직접 맡은 법정에는 엄숙함이 흘렀다. 학부모 7명과 학생 22명도 방청객으로 참여했다.

법정에서 검사는 가해학생이 칼로 동급생을 위협하고 가방을 갈취했으며 노예 계약서를 쓰게 했다는 피의사실을 적시했다. 이에 변호사로 나선 학생은 “악의 없는 장난이었다”며 “피해학생이 싫다고 말하지 않아 고통받는지 몰랐다”고 변호했다. 그러나 7명의 배심원은 검사 측에서 제출한 녹취록을 검토한 끝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몰랐다’는 것이 폭력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장원중에서는 매달 10일을 전후해 한 달에 한 번 자치법정이 열린다. 벌점 5점 이상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선발된 검사와 변호사가 대립한다. 학생들은 자치법정이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정에 선 학생은 이 경험을 부끄러워해 태도를 바꾼다는 것이다. 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를 이해할 수 있어 소통의 효과도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학생은 “어른들은 무조건 학교폭력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치법정이 매력적이다”고 말했다.

교사들 역시 자치법정이 ‘자발적인 교정’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하고 있다. 장원중 설선국 교사는 “교사들이 부과하는 벌점에 반발하던 학생도 자치법정의 결과에는 수긍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은 습관적으로 이뤄질 때가 많다고 말한다. 사소한 괴롭힘이 큰 주먹다짐으로 이어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준식 장학사는 “학교폭력의 피해와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가해학생들이 불현듯 깨닫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자신들이 무심코 휘두른 폭언과 폭행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모르다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오 장학사는 “학생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다”고 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신순갑 사무총장 역시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면 ‘와닿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 행정기관, 전문 상담기관 등이 긴밀하게 연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김효정 기자

"처벌보다 예방"… 현장 조기발견에 최우선

'아동안전 수호천사'·스쿨폴리스 통한 순찰·예방교육에 중점

학교폭력 문제는 더 이상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과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합치고 있다. 학교폭력 현장을 조기에 적발하는 스쿨폴리스 제도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1대1 멘토링 등을 통해 가해학생의 교화와 피해학생의 치료에 힘쓰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오후 4시, '아동안전 수호천사' 활동에 참가 중인 한국야쿠르트 아줌마 김순애(52·가명)씨는 서울 용산구 한 중학교 주변 뒷골목에서 친구 두 명에게 끌려가는 김경환(15·중3·가명)군을 발견했다. 의아하게 생각한 김씨가 말을 걸자 가해학생들은 김군을 끌고 가던 것을 멈추고 "왜 거짓말해"라고 말로 나무라기 시작했다. 평소 '아동안전 수호천사' 활동 교육을 받아왔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던 김씨는 순간 김군이 학교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김씨는 얼른 김군의 손을 잡고 현장을 빠져나와 무사히 귀가시켰다.

김군은 4월 4일 서울 용산경찰서를 찾아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다. 일진들에게 '찍혀' 돈을 빼앗기고 구타를 당한 김군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용기를 낸 건 그날 집에까지 바래다주고 힘을 내라며 격려해주던 야쿠르트 아줌마 김씨 덕분이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경찰은 김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신고할 용기 북돋아줘

경찰청 생활안전국 노우현 경위는 "아동안전 수호천사 활동은 아동·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는 민간순찰대 개념으로 지난 2008년부터 조직됐다"며 "야쿠르트 아줌마, 집배원, 택시기사 등 2만4천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들의 탈선현장이나 학교폭력 현장을 적발해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없는 사회에는 학교, 학생들의 자체적인 노력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나 기업, 경찰에서도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학교폭력을 뿌리 뽑으려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4월 28일 경북지방경찰청과 포스코그룹은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생 40명과 경찰관 40명을 연결하는 1대1 멘토링 프로그램 '공감 드림 캠프'를 열었다.

지난 1월 19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1백5개 청소년·아동·학부모·사회복지단체 등과 함께 '학교폭력대책범국민연대'를 발족한 것이 대표적이다. 발족식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정책을 감시하겠다는 행동방침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시키고 예방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발표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신순갑 사무총장은 "교사와 학부모에게만 맡기기에는 학교폭력은 전 사회적인 문제"라며 "정부·지자체·교육기관·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담당하던 학교폭력 사건을 강력팀으로 이관한 후 처벌에 힘쓰던 경찰도 최근 들어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지역사회와 경찰의 예방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학교폭력 현장을 조기에 적발하는 활동이 첫번째다. 야쿠르트 아줌마 김씨가 속한 아동안전 수호천사 활동이나 각 지역 경찰서마다 도입 중인 스쿨폴리스 제도가 여기에 속한다. 아동안전 수호천사는 원래 경찰청이 유아나 초등학생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만든 단체인데 학교폭력을 조기에 적발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스쿨폴리스 제도는 학교마다 담당 경찰관을 배치하여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순찰 및 예방교육을 하는 제도다.

지난 2월부터 스쿨폴리스 제도를 시행 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처음에는 경찰관이 학교에 배치된다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꼈다"면서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교정하고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 이제는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스쿨폴리스 제도를 반기고 있다"고 했다.

경찰·교총 학교폭력 정보공유 업무협약도

보다 근본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예방교육도 진행되고 있다. 학교 내에서의 예방교육에는 한계가 있어 경찰과 시민단체에서 앞장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3월 7일 경찰청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함께 대처하자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을 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지난 2월 7일에는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광주 한 중학교에서 개그 콩트 형식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기도 했다. 경찰관들이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2월 7일에는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인기 개그프로그램의 코너를 빌려 학생들 앞에서 서기도 했다.

인기 개그프로그램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애정남' 형식을 빌려 돈을 빌리는 것과 갈취하는 것의 차이 등을 가르쳤다.

경찰박물관에서는 지난 4월부터 매월 2차례 연극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체험하는 예방교실 '내 마음이 들리니'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직접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입장이 돼 연기해봄으로써 상대를 이해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얻고 있다.

"이젠 지역사회가 나서 학교폭력 뿌리 뽑아야"

최근에는 경찰,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경북지방경찰청과 함께 4월 28일 학교폭력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과 경찰관을 연결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공감 드림 캠프'를 열었다.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캠프에서 학생 40명과 경찰관 40명은 조별로 같은 티셔츠를 갖춰 입고 팀워크를 기르는 공부를 함께했다. 캠프를 주관한 문말애씨는 "의외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놀랐다"며 "학교 울타리 밖에서 학생들이 스스럼없이 멘토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내에서의 노력만으로는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신순갑 사무총장은 "학교폭력은 일선 학교, 스트레스를 폭력으로 푸는 학생들 모두에게 문제가 있어 발생한다"며 "학교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변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앞장서 해결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G

글·김효정 기자

"아이들에게 자기제어 능력을 키워주자"

컴퓨터를 멀리하고 부모와 오손도손 얘기 나누는 '밥상머리 교육' 절실

매일같이 보도되는 학생들의 자살, 그 원인으로 어김없이 거론되는 학교폭력의 문제…. 일부 아이들이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 이유로는 부모의 적절한 훈육 부재와 그 틈을 파고든 'IT중독'이 있다. 결국 컴퓨터를 조금 멀리하고 부모와 함께 오손도손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얘기다.

한 달에 한 번씩 어김없이 열리는 회의가 있다.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아이들의 가퇴원 여부와 보호관찰의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다. 이미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이 소년원 문을 나선 후 재적응할 수 있을까 예측해야 하다 보니, 아이들의 가정환경과 재입학 여부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

회의에 참석하는 소년원 관계자는 물론 검사와 판사, 필자를 포함한 외부 심사위원들 모두가 부모의 마음이 되어 아이들 한명 한 명의 재적응 가능성을 타진하게 된다. 그럼에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원들이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가정환경 부분이다. 가정이 이미 손상되고 해체돼 회복할 수 없게 되면 아이는 가정 안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다.

5월 한 달 동안에는 누구나 가족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하지만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정의 기능은 최근 10여 년간 상처를 입을 대로 입었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많은 가정이 해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 결과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아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지경이 되었다. 이혼율이 급증한 이후 이어진 가출청소년의 증가와 청소년 폭력의 문제는 이같은 사회적 병폐의 순차적인 진행과정인 것이다.

가정이 해체되면 아이도 보호받지 못해

아이들이 처한 환경이 척박해졌다는 사실은 청소년들의 비행통계로도 알 수 있다. 환경이 열악한 탓에 비행의 경로로 빠져든 청소년 열 명 중 네명이 다시금 비행의 굴레로 돌아간다는 통계자료는 '어릴 때의 말썽은 누구나의 한때 경험'이라는 고정관념을 철저히 무너뜨린다. 비행청소년 중 15퍼센트 이상이 여학생이라는 통계치는 사회적인 병리가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여자 청소년들에게 최근 더욱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추정케 한다.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다 보니 아이들의 문제행동은 여러 측면으로 나타난다. 청소년들의 자살 증가나 인터넷 중독 그리고 주의력 결핍 등이 그것인데 날로 그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부모의 훈육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아동기에 습득해야 하는 자기조절 능력을 습득하지 못한 점이 더더욱 이런 문제들을 부추긴다.

최근에 심각한 범죄에 연루돼 검거된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은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죄의식도 갖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저 사이버공간의 조급함에 물든 아이들이 얼마나 생각하는 것 자체를 힘겨워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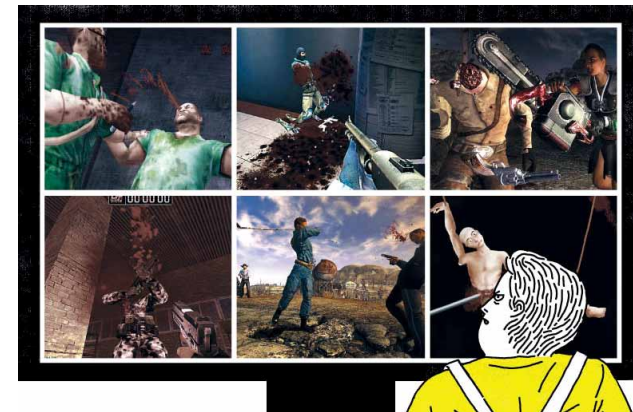
IT는 인류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놓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도 크다.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문제를 점점 기술문명에 의존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목격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행동은 상당 부분 IT에 대한 의존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보호기능이 실종된 틈을 사이버세상이 침습해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훈육과 지지가 필요한 욕구를 사이버 공동체가 대신 채운다. 그러다 보니 친모, 친부와 함께 사는 아이들조차 부모와의 대면접촉보다 사이버공간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다. 굳이 직접 만나지 않고 이루어지는 현실생활과 거리가 있는 사회화가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들 인내심 부족도 인터넷 중독과 연관

청소년들의 인내심 부족 역시 가정의 훈육기능 손상 및 인터넷 중독과 큰 연관이 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과 정신의학자들은 인터넷 중독이 심한 아이들일수록 전전두엽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아이들은 부모의 훈육과정을 통해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을 배운다.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은 전전두엽이 관장한다. 부모와의 대면접촉 대신 IT기기로 사이버 세상에서 생활하는 것에만 몰입하는 일은 전전두엽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의 기능적 발달 역시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IT중독이 우리 아이들이 조급하고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매우 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다.

부모와 아이들이 화목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다. '밥상머리 교육'이 인성교육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연달아 이어지는 아이들의 죽음, 그리고 매일같이 언론에 보도되는 아이들의 문제행동을 보면서 '밥상머리 교육의 절실함'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예전 우리 부모님이 더운밥을 차려놓고 자식들을 어르고 달래던 그 한마디다. 돌이켜보면 부모님과 시선을 마주칠 때마다 느꼈던, 어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했던 그 느낌이 우리에게는 끼니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었다.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서로 눈을 맞춰라"

오늘도 스마트폰에 빠져 사는 아이들과 한번이라도 더 눈을 마주치고 말을 섞기 위해 노력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

자신의 먼 미래를 내다보며 현재의 부족함을 견딜 수 있는 능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기 싫어서 당장에 하고 싶은 일도 참아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리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하고 꼭 필요한 유산이 아닐까.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제어하는 능력이야말로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꼭 갖춰야 하는 미덕이다. 이를 배양하도록 하는 데 부모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중요하다. 결국은 그런 과정을 거쳐 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의 주요한 구성원이 될 것이다.

스마트폰을 멀리하라. 눈을 서로 맞추라. 그리고는 무슨 말이든 들어주고 또 답해주라. 그것이 바로 현재의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이다. G

글 ·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선생님과 부모가 적극 나서야 한다"

학교폭력은 당하는 아이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좌절 안겨

시체놀이·기절놀이·금품 상납… 듣기만 해도 오싹한 단어지만 어떤 아이들에게는 일상적으로 보고 당하는 일들이다. 학교와 정부, 그리고 가정이 이 아이들을 구해줘야 한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미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에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1백39만명)의 12.3퍼센트인 17만명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들 중 47퍼센트가 교내에서 폭력피해를 경험하고 있었고, 7.7퍼센트의 학생들이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폭력피해를 당하고 있었다. 우리는 학교폭력에 분노하고 있고, 폭력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학생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면서 매우 당혹해하고 있다. 정부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서둘러 발표하였다.

힘센 아이들에게는 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당하는 아이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좌절을 주는 것이 학교폭력이다. 시체놀이, 기절놀이, 노예놀이, 대물림되는 집단 따돌림, 빵 셔틀, 외모 비난하기, 금품 상납 등 그 유형도 다양하다. 부모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쉽게 발각되지 않는다.

청소년기 폭력피해는 어른들보다 심각

폭력은 피해자들에 많은 어려움을 준다. 특히 아동·사춘기에 겪는 폭력피해는 성인들이 겪는 폭력피해보다 더욱 심각하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 '괜찮은 아이'로 평가받기를 원한다. 이 과정에 아이들은 자신을 이해하는 틀, 즉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자아상'을 만들어간다.

'괜찮은 아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형성된 긍정적 자아개념과 이상적 자아상은 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고, 크고 작은 좌절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러나 괜찮은 아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형성된 부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상은 이들에게 좌절과 낙담, 분노 등을 제공한다.

이토록 중요한 자아개념과 자아상 형성과정에는 또래들의 영향이 가장 크다. 그런데 이 시기에 또래들로부터 거절당하고, 폭력피해를 경험한다면 그 결과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복수담임제 도입, 경찰청의 117전화를 통한 신고·조사체계 개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만 있다면 학교폭력 근절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오는 조짐이 잘 보이지 않는다.

선생님이 조금만 신경써도 학급분위기 달라져

정부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음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첫째, 실적 위주의 정책 나열이 아닌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폭력을 근절시켜나가는 데 많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 중에 일선 학교에서 실천 가능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담보해주는 몇 가지의 대안들만이라도 제대로 실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족한 예산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려다 보면 대책들이 부실하게 실행되면서 기대하는 효과를 얻어낼 수 없다.

실제로 이번 대책에서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고 하였지만, 예산이나 제도 문제로 일선학교에서는 적은 보수로 채용할 수 있는 촉탁직 상담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현재 학교는 촉탁상담교사의 상담능력보다는 이들을 채용하는 데 급급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학교폭력에 전문상담이 필요하다면(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상담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학교 선생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모든 선생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학교폭력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해도 정작 선생님들은 조용한 것만 같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적 대안에 관심조차 없는 분들도 많아 보인다.

'늘 그래 왔듯이 시간 지나면 조용해질 것인데, 내가 그런다고 달라질 것도 아닌데, 교사들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학교폭력 때문에 처리해야 할 공문만 늘어나 바빠지기만 하고…'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호소하는 고통이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는가?

서울 신문로 경찰박물관 건물 외벽에 걸려 있는 '빵셔틀 운행중지' 광고물. 빵셔틀은 빵을 사오는 등의 심부름을 강제로 시키는 것을 뜻한다.

어느 교장선생님은 선생님들과 순번을 정해 쉬는 시간마다 복도순찰을 했다. 많은 선생님이 복도를 순찰하고,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자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또 부장 선생님들이 복수담임이 되셔서, 지도하기 어렵거나 위기상태에 있는 몇 명의 학생을 자주 만나자 금방 학급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한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폭력을 없애기 위해 진실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정부정책보다 더 좋은 대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내 제자들을 위해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부모들은 자식들과 소통에 더 신경쓰자

셋째, 우리 부모들도 자녀교육에 좀 더 앞장서야 한다. 자녀교육에 더 신경을 쓰라고 하면 학원을 더 많이 보내는 학부모들이 있다. 부모는 자녀가 사람이 되는 교육, 인성을 다듬어가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요즈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사라지고 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바쁘다. 어쩌다 함께 있어도 향하는 시선이 서로 다르다. 그러다 보니 부모·자녀가 불통이다. 소통이 되어야 교육이 가능하다.

부모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첫번째로 만나는 도덕 선생님이다. 불통이니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 없다. 또한 핵가족으로 출발하는 젊은 부모들은 자녀교육 방식을 배울 기회가 없다. 그러다 보니 부모 역할이 잘못되거나 왜곡되기도 한다. 부모들의 작은 문제는 아이들에게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온다.

요즈음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잘 모르면서 키운다. 내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는 아이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을 잃어버린다. 아이들은 점점 더 외롭게 된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배우고 가르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G

글·구본용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장·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어떻게 살아왔나 싶지만 가족이 있어 행복”

치매 시어머니와 장애 아들, 간암 남편 30년간 보살핀 최순덕씨의 고귀한 헌신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최순덕씨 가족은 이와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왔다. 불안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온 시간이 많았다. 그 시간을 건너 이제는 행복과 웃음이 가득한 가족이 되었다. 중간 다리가 되어준 것은 3대에 걸쳐 흘러온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었다.

치매에 걸려 이제는 아기가 되어버린 시어머니 박교순씨와 박씨를 30년간 모셔온 며느리 최순덕씨가 꽃밭에서 활짝 웃고 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순덕(51)씨의 말이다. 최씨는 30년 동안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을 키웠다. 남편 한경희(54)씨는 “아내이면서 내가 기댈 수 있는 바위 같은 사람”이라고 최씨를 설명했다.

자신도 놀랄 정도로 최씨의 인생에는 많은 일이 있었다. 1983년 결혼한 최씨는 결혼과 동시에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를 모셨다. 남편은 분가하길 원했지만, 시어머니 박교순(80)씨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한씨의 월급을 직접 관리하며 한 달에 1만원 정도만 생활비로 주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를 모시며 시누이들까지 살뜰히 잘 챙기는 최씨를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요즘에 보기 어려운 착한 며느리”라고 칭찬했지만, 시어머니는 최씨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

중증장애 안고 태어난 아들 30번 넘게 수술

손자를 안겨드리면 좀 나을까 싶었지만, 그것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아들 필규(26)씨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얼굴이 기형으로 자라는 크루존증후군(Crouzon Syndrome)이라는 희귀병이었다. 여기에 코와 항문까지 막힌 채 태어났다.

30여 차례의 수술 ‘대장정’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최씨는 아들을 낳고서 8년간 매일 아이를 안은 채 잠을 잤다. 비강이 막혀 있어 코로 숨을 못 쉬는 아들이 밤새 숨이 막혀 잘못될까 싶어서였다. 시어머니는 사람을 잘못 들인 탓이라며 굿을 했다.

그러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아기’가 돼버렸다. 1998년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심해졌다. 가족들을 몰라보고 대소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 남편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자고 했지만, 최씨가 반대했다. 매끼 죽을 끓여 떠먹여 드리고 매일 씻겨 드렸다. 그 생활이 14년째다. 최씨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딸, 아들이 함께 어머니를 모셨기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시어머니는 요즘 최씨를 ‘언니’라고 부른다. 종일 ‘언니’의 보살핌을 받다가 저녁이면 ‘돈 이불’을 덮고 잔다. 치매에 걸리고 나서 돈에 집착하는 시어머니를 위해 만든 최씨의 작품이다. 5만원짜리 지폐 무늬가 찍힌 천을 끊어다 직접 만들었다.

최순덕씨 가족은 가족밴드를 만들어 봉사활동도 한다(왼쪽). 5월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1백68명의 효행자·장한 어버이를 기리기 위해 훈·포장, 표창을 수여했다.

경찰로 일하던 남편도 간암 판정 11번 수술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3년 남편 한씨가 간암 2기 판정을 받았다. 26년간 경찰로 일하던 한씨는 일을 그만두고 투병생활에 들어갔다. “건강상 계속 다닐 수 없었어요. 그만두고 싶기도 했고요. 제 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직장을 더 다녀서 뭐 하나 싶더라고요. 가족과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간 절제 수술 후 암이 재발하자 한씨는 유서를 써두고 영정사진을 찍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던 한씨를 일으켜 세운 건 ‘가족’이었다.

한씨는 “고생만 시킨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다. 지난 10여 년간 수술만 11번을 받았다. 다행히 2005년 말 두번째 간이식 수술을 받고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

최씨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이름은 ‘행복이 가득한 바우네 집’이다. 바우네 집에는 음악도 넘친다. 건강을 회복한 후 한씨는 색소폰을 배웠다.

아들 필규씨와 최씨도 배우게 했다. 한씨는 “아내가 워낙 손재주가 좋다 보니 색소폰 연주도 금방 배웠다”고 연신 최씨를 칭찬했다. 어떻게 색소폰을 그렇게 금방 배웠는지 최씨에게 묻자 “리드가 약한 색소폰을 불면 어렵지 않다”는 겸손한 답이 돌아왔다.

‘가족밴드’는 일주일에 한 번 공연 봉사를 다닌다. 2010년 초부터 시작한 봉사다. 1년에 두 번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를 벌였는데, 인근에 소문이 났는지 노인대학과 요양시설에서 공연 요청을 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방문해 공연하는 곳이 네 군데나 된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는 마음에 장비도 샀다. 악기에 음향장비까지 1천만원 남짓 들었다. 대가 없이 그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이들 부부는 “봉사하면서 얻는 기쁨과 에너지가 더 크다”고 말한다. 시어머니 박씨도 가족밴드의 팬이다. 모든 공연에 동행한다.

가족밴드 만들어 봉사도… “뭔가 할 수 있어 행복했어요”

최씨에게 지난날을 돌아봤을 때 후회는 없느냐고 물었다. 최씨는 “아이를 더 원한 남편의 뜻을 따라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아픈 자식을 또 낳을까 봐 더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최씨는 “지난 세월 동안 뭔가 할 수 있어 행복했다”며, “행복은 불안이나 걱정, 미움 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미소를 지었다.

보건복지부는 최씨와 그 가족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 최씨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지난 5월 8일 40회 어버이날에 시상식이 있었다. 최씨를 포함해 효행자, 장한 어버이, 노인복지 기여자 등 1백68명이 국민 훈장·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글·하주희 기자

어버이날인 5월 8일, 대전 서구 도마경로당에서 한울타리 정신장애인자원봉사단이 꾸린 어버이날 잔치가 열렸다. 자원봉사단은 9년째 매주 수요일마다 직접 만든 밑반찬을 들고 경로당을 찾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도움만 받다 남 도우니 정말 뿌듯해요"

대전의 사회적기업 '한울타리' 장애인봉사단, '나눔천사'로 유명

어버이날인 5월 8일, 대전 서구 도마경로당에서 특별한 잔치가 열렸다. 한울타리 정신장애인자원봉사단원 15명이 마련한 자리다. 도움을 받기만 하던 정신장애인이 독거노인을 돕겠다며 매주 직접 만든 밑반찬을 나른 지 어느덧 9년째. 뿌듯해하며 '나도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자원봉사단원들은 이제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나눔천사'가 되었다.

"매주 수요일이면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 배달하는데, 어버이날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준비한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어수선하네요. 그래도 단원들이 '하고 싶다'며 발벗고 나선 거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 사회적기업 '한울타리' 정신장애인자원봉사단 이진욱 팀장은, 기자를 만나자마자 정신장애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쉬운 일이 아니라며 운을 띄웠다. 대개 정신장애인들은 일반인보다 집중력이 약하고 대인관계에 서툴러 자원봉사 활동을 능숙하게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자원봉사단원들이 어르신들 앞에서 재롱을 떤 대전 서구 도마경로당에서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오후 2시, 어르신들이 한 명씩 입장하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던 자원봉사단원들이 어르신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준 후 손을 잡고 앉을 자리로 안내했다.

어버이날에 경로당 위로잔치도 열어

빵과 과일, 음료수를 차려놓은 잔칫상 앞에서 장애인들은 장기자랑을 했다. 자원봉사단원 남윤완씨가 대중가요 '무조건'을 부르자 어르신들도 하나둘 일어나 어깨춤을 추면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다.

"자, 손뼉 치는 게 몸에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손뼉치기게임 해봐요. 마주 앉으시고, 보글보글, 짝짝! 지글지글, 짝짝!" 사회복지사 채송화씨가 진행한 손뼉치기게임을 따라 하면서 한바탕 웃음꽃이 폈다. 이어 봉사단원들이 어르신들의 어깨를 주무르자 여기저기서 '시원하다'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어르신의 입이 심심할세라 포크로 과일을 찍어주는 박성희씨 옆에서 임권규씨는 성대모사를 하며 재롱을 떨었다.

봉사단원들이 입을 모아 '어머님 은혜'를 부르자 어르신들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도 했다. 도마경로당 노인회 회장 허학구 할아버지는 "어버이날 낮 동안 무료할까 걱정했는데 즐겁게 해줘서 아주 고맙고 신난다"며 웃었다. 박영자 할머니는 모두가 자리를 뜨고 나서도 못내 아쉬운 듯, 음료수를 마시다가 "내년에도 꼭 와요"라고 당부했다.

한울타리는 중증 정신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해 쿠키와 빵 만드는 공장을 차려 판매하고 있는데, 2천5백명의 후원자가 보내준 후원금으로 33명의 장애인이 월 4천2백만원의 수익을 낸다. 얼마 전부터는 대전시청 등 공공기관 3곳에 '건강카페'를 열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팔고 있다.

한울타리에 자원봉사단을 꾸린 것은 2004년 8월이다. 도움만 받던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다. 받은만큼 돌려주면서 사회 적응 훈련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힘든 일 투성이였다. 2005년부터 자원봉사단에 합류한 이진욱 팀장은 "처음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일일이 '어디로 가세요', '무엇을 하세요'라고 도움을 드려야 했다"고 말했다.

9년째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 자원봉사

"밑반찬을 전달하고 오라면 그냥 반찬통만 덜렁 놓고 오곤 했어요. 집을 찾아가다가 다른 곳으로 새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나 같은 일이 한두 번 반복되면서 자원봉사단원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박성희씨는 할머니들에게 말도 못 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수요일이 아니라도 틈틈이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요즘은 어떻게 지내느냐'며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걸 꺼리던 홍성일씨는 남을 도우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얼마전에는 예쁜 신부를 맞아 결혼도 했다.

자원봉사단원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자 활동 범위도 넓어졌다. 매주 토요일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빵만들기 교실이 열린다. 이진욱 팀장은 "거의 모든 토요일 일정이 잡혀 있다"며 "장애인들은 '선생님'이란 호칭에 즐겁고, 일반인들은 지식을 얻어가니 모두가 좋아한다"고 밝혔다.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어르신들의 어깨를 주무르는 자원봉사단원들의 손길에는 뿌듯함과 자신감이 한껏 묻어나온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도 앞장서 찾았다. 가로수에 코스모스를 심고 쓰레기를 주웠다.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탕을 나눠줬다. 2005년부터 자원봉사 활동을 한 임권규씨는 "그냥 지나가면 장애인이라고 피하던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고 있노라면 '감사합니다'라며 말을 걸어 눈물이 나온 적도 있다"고 했다.

"봉사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애줘요"

"얼마 전에 슈퍼에 갔는데 모여 있던 아줌마들이 '오늘 수요일이네' 하더라고요. '봉사단들이 저쪽 길로 줄레줄레 걸어가는 걸 보고 수요일인지 알아차렸다'고 했어요. 그 말이 그렇게 감동적이었어요."

사회복지사 송미옥씨는 자원봉사 활동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도 일조한다고 했다. "장애인 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멀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주민들은 안 그래요. 서로 인사하고 웃으며 지나가는데는 꾸준히 봉사활동했기 때문이죠."

올해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아 잔치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9년간의 활동을 나름대로 기념하기 위해서다. 임권규씨는 "이 자리는 어르신께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았다고 고마워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2004년 자원봉사단 창설 당시부터 활동한 남미숙씨는 "처음에는 보람 있는 일이라고만 여겼는데 하면 할수록 즐겁고 뿌듯할 뿐만 아니라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한데 어우러진 도마경로당의 잔치 자리가 "10년, 20년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한울타리 정신장애인자원봉사단 모두의 소원이다. G

글·김효정 기자 / 사진·서경리 기자

"베트남 국적이지만 한국사람 다 됐어요"

재혼한 엄마 따라 입양된 15세 태겟, 코리안 드림 이루기 위해 "오늘도 달려요"

울산 대현중학교엔 '외국인'이 있다. 이 외국인은 축구도 잘하고, 태권도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베트남말도 잘한다. 그뿐인가. 아직은 서툴지만 글도 잘 쓴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또렷한 눈매를 가진 당태겟(15)군의 얘기다. 몸이 불편한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엄마의 슬하에 2남2녀 중 맏이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조금씩 이뤄나가는 태겟군을 만나봤다.

울산 삼산동의 '외국인 남매'로 통하는 태겟과 오안. 어머니를 따라 한국으로 입양돼 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태겟은 친구들 사이에서 '외국인'으로 통한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적이 아직 베트남으로 돼 있으니까.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라 '외국인'이라는 별명이 자칫 거부감이 일거나 상처가 될 법한데 태겟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 듯하다. "절친(가장 친한 친구)이 몇 명이냐"고 물으니 망설임 없이 "열 명"이라고 대답한다.

태겟은 베트남 출신 어머니 응웬옥더이(33·이하 응웬)씨가 2007년 한국인 아버지와 재혼하면서 동생과 함께 정식 입양 절차를 거쳐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왔다. 엄밀히 말하면 태겟의 가정은 다문화가정이면서 입양 가정이다.

한국에 올 때 4학년이었던 태겟은 이제 중학교 3학년. 한창 공부할 시기라지만 태겟은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을 가는 대신 태권도장 가는 날을 제외하곤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몸이 불편한 아버지(신체장애 3급)와 식당일을 하는 어머니를 대신해 어린 동생들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돕는다. 이제 갓 돌이 지난 막냇동생의 기저귀도 갈아준다.

방과 후엔 바쁜 부모님 대신 동생들 돌봐

"동생들을 잘 돌봐주니까 막내는 태겟이 아빠인 줄 안다"는 게 어머니 응웬씨의 말이다. "동생들이 예쁘냐"는 질문에 태겟은 씨익 웃으며 동생들을 '아빠미소'로 끌어안는다. 부부싸움할 때도 아버지 편을 든다는 태겟은 어머니 응웬씨가 "힘들다"고 하면 오히려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예쁜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겠다"고 말하는 속 깊은 아들이다.

응웬씨는 "아빠가 성격이 꼼꼼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도 태겟이 아빠를 사랑하고 친아빠가 아닌데도 아껴주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온다"고 말했다.

아버지 김병용(51)씨는 "잔소리를 많이 해도 태겟에게 '넌 끝까지 내 자식'"이라고 말한다면서 "아직 한국 문화가 익숙지 않은 태겟에게 잔소리를 하면 부딪히는 부분도 있지만, 속이 깊고 착해서 잘 따라준다"며 고마워했다.

아직 한국말이 능숙하진 않지만, 태겟은 동네에서 인사성 밝기로 소문 나 있다. 얼마 전엔 한국공항공사가 주최한 다문화가정 수기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하지만 "적응 초기에는 진통이 많았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태겟은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해서 한국에 온 경우라 문화 차이로 바로 밑의 동생 오안보다 더 힘들어했어요. 베트남에서는 5학년이었는데 한국 교과과정 수준과 적응을 고려해 4학년에 편입하게 됐지요. 그때는 적응기라 친구들에게 놀림도 당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싸우지 말라'는 말 대신 '싸울 거면 더 최선을 다해 싸워라' 하고 말했어요. 어차피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면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김씨는 당시 툭 하면 맞거나 싸우고 들어오는 아들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그런 아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축구와 태권도를 접하게 했다. 축구와 태권도는 베트남에서도 인기였던 터라 태겟은 큰 거부감 없이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입국 초기 부적응은 축구와 태권도로 극복

태겟은 2007년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울산 카이사 유소년 축구교실을 시작으로 그동안 전국 대회 주전선수로 참가했다. 박성화 유소년 축구교실을 거쳐 현재 대현중학교 토요일 방과후 축구교실의 클럽리그전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다. "축구를 하면서 성격이 많이 차분해졌고, 적응도 수월해졌다"고 아버지 김씨는 말했다.

"훗날 멋진 태권도 선수가 돼 베트남에 한국의 태권도를 제대로 알리자"는 뜻에서 시작한 태권도는 이제 태겟의 장래희망이 됐다. 태권도를 꾸준히 배운 결과 태겟의 실력은 현재 2단이다.

그간의 성적도 화려하다. 2009년 제12회 울산광역시 교육감기 태권도대회 라이트급과 울산광역시 시장기 태권도 대회 라이트급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울산태권도협회 협회장기, 지난 3월 제13회 울산광역시 시장기 태권도대회 라이트급 1위 우승도 거머쥐었다.

"학과 성적이 그리 좋지 않고 운동을 좋아하니 대학은 체육특기자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태권도 선수가 되거나 경찰이 되고 싶어요. 경찰이 되려면 군대를 가야 하는데 아직 국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태겟이 말끝을 흐리자 아버지 김씨가 말을 이어나간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본인 사인만 있으면 국적 포기와 취득이 가능한데, 입양아인 태겟과 오안의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태겟과 오안 남매는 현재 한국 국적이 허가된 상태이나 베트남 국적 포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예요. 베트남 국적을 포기하려면 친부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국적 포기에 필요한 서류 등 비용도 1인당 1백30만원 정도로 만만치 않아요." 강씨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다.

태겟의 가족. 2007년 어머니의 재혼으로 한국에 온 후 동생 둘이 더 태어나면서 가족은 네 식구에서 여섯 식구로 늘었다.

"오안도 급하지만 태겟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자격 제한에 걸려 축구협회의 축구교실에도 다닐 수 없고, 8월에 있는 태권도 심판자격증을 따는 데 당장 문제가 생겨요. 두 아이들의 국적취득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12월 26일까지 베트남 국적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 허가마저 취소되는 상황이라 요즘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룹니다."

절차·비용 때문에 한국 국적 취득 못해

기초수급자에 신체장애 3급인 김씨는 그동안 불편한 몸으로 명함이나 인쇄물 제작 등의 일을 해왔지만, 현재는 사실상 무직이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 가정에 '베트남 국적 포기 비용'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아내와 결혼 후 2명의 친자녀(아들·딸)를 낳았는데, 사춘기인 태겟과 오안이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을까봐 요즘 더욱 조심스럽다"는 김씨는 "하루빨리 이런 상황이 개선돼 태겟과 오안이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정정당당히 살아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G

글과 사진·박근희 기자

이웃을 향해 열려 있는 가족이 행복하다

'헌신적 희생과 조건 없는 양보'가 가족공동체의 핵심 가치

'가족'의 사전적 의미는 '부부와 같이 혼인으로 맺어지거나 부모·자식과 같이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이다. 가족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내 아이만 챙기는 '가족 이기주의'나 남편과 자식의 성공에 집착하는 '가족 공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엇보다 이웃을 향해 열린 가족이 되어야 한다.

프랑크 쉬르마허가 쓴 〈가족, 부활이냐 몰락이냐〉(장혜경 옮김, 나무생각)를 펼치면 흥미로운 사례가 눈길을 끈다. 독일의 유명 휴양지에서 누전사고로 3백여 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함께 여행 온 가족들 중엔 사상자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타다 남은 CCTV를 판독해본 결과 이 수수께끼를 풀어줄 장면이 포착되었다. 휴양지 피서객들은 한창 재미있게 즐길 때는 낯모르는 이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렸다.

하지만 경계경보음이 울리자 함께 놀던 이들의 손을 놓고 황급히 누군가를 찾아나서는 장면이 곳곳에서 잡혔다. 그들이 황급히 찾아나선 그 누군가는 바로 '가족'이었다.

'가족 이기주의'는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어

이 대목에서 저자는 약자를 향한 이타적 돌봄과 배려, 헌신적 희생과 조건 없는 양보야말로 가족이 구현하는 공동체적 가치의 핵심임을 지목한 것이다.

조선DB

약자를 향한 이타적 돌봄과 배려, 헌신적 희생과 조건 없는 양보야말로 가족이 구현하는 공동체적 가치의 핵심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환금(換金)이 불가능한 이런 가치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일견 역설적이지만, 공동체적 가치를 빠르게 상실해가는 사회일수록 미래 또한 암울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5월, 어린이날을 필두로 어버이날을 거쳐 부부의 날이 연이어 기다리는 가족의 달이다. 가족만큼 신비화(Mystified)된 사회제도도 찾아보기 어려우리란 주장이 있다.

실제로 가족은 도덕적·윤리적 행위양식의 저장고라는 느낌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가족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정한 인식을 견지하는 것을 봉쇄해왔다. 더불어 가족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말해선 안되는지의 규범과 룰이 더 정교하게 발달했다.

누가 가족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가족의 경계를 문화권별로 비교한 결과 동남아시아에선 혈연을 나누지 않은 배우자는 가족에 포함시키지 않음이 밝혀졌다. 가족의 친소(親疎)관계도 문화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한국과 인도에선 엄마와 아들이 가장 가깝고 부부가 가장 소원한 반면, 서구에선 부부가 가장 친밀하고 남자 형제 간의 거리감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이웃을 향해 열린 가족이 되어야 한다. 내 아이만 챙기는 '가족 이기주의'나 남편과 자식의 성공에 집착하는 '가족 공리주의'의 벽에 갇혀 있는 한 우리네 가족은 요새가족(Fortress Family)에 머무를 수 있다.

겉으론 견고한 성곽으로 무장했으나 정작 가족 간에는 소통이 단절되어 심리적으로 소외된 '빈 껍데기 가족'으로 남을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다.

가족의 만족스러운 삶이 진정 소중한 가치

서울 근교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곳에는 한 독지가가 사재(私財)를 털어 운영하는 주부대학이 있었다. 초창기엔 학생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학생들 또한 별다른 열의를 보이지 않아 운영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졸업생을 내게 되고, 주부대학도 모범적으로 운영해 그곳은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데 이곳 주부들이 변화를 경험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인근의 지적 장애아 수용시설에서 자원봉사를 경험한 뒤부터였다. 주부대학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자원봉사 과정에서 주부들 대부분이 '가족 이기주의'가 자신의 가족들을 불행하게 함을 절감한 것이다.

이웃 집 아이들보다 공부 못하는 자식이 밉고, 변변히 출세 못하는 남편이 원망스럽던 주부들. 이젠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대견하고, 남편의 출세보다 가족의 만족스러운 삶이 소중한 가치임을 발견하면서, 아들딸 그리고 남편에게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주부로 거듭나게 되었다.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감사할 줄 몰랐던 주부의 이기심이, 소외된 이웃을 향한 애정과 자신의 공동체를 향한 관심으로 승화되면서 이루어진 해피엔딩인 셈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우리식 가족공동체 모델의 장점에 서구식 복지모델의 강점을 결합한 새로운 노후 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서구의 실버타운이 일부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줄 것이다. 실버타운은 대부분 도심에서 떨어진 공기 좋고 물 좋고 땅값 싼 곳에 세우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과 친지의 방문에 어려움이 따르고, '머지않아 죽게 될 노인들'만 함께 지내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삶의 만족도와 활력이 급격히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로의 다름에 적응하고 갈등 극복해야

그래서 독일에서는 어린이집 가까이 실버타운을 짓는 세대통합적 시도가 환영받고 있고, 일본에서는 도심에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 노인을 위한 의료시설은 물론 무장애(無障碍) 기술을 도입한 노인 부양공간을 할당하는 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도 다양한 지각변동과 세포분열을 거듭해가고 있는 가족환경의 변화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친정(처가)을 중심으로 양육과 부양이 이루어지는 신모거제 가족과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부계 중심 가부장제 가족 가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계제적 친족문화를 구축해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혈연가족 중심적 사고를 뛰어넘어 유사 가족공동체의 연계망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봄 직하다.

가족이란 하나의 정답만이 있는 공동체는 아니다. 관계성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인간의 생존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고안된 제도인 만큼, 역사적 상황과 문화적 요건에 따라 다양한 답을 여러 갈래로 추구해온 것이 가족의 본 모습일 게다.

그런 만큼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끼리 자신의 방식만 정답이라 고집하기보다 서로의 다름에 적응해가고(化) 애정과 친밀감을 나누며(和) 갈등을 현명하게 극복하여 화(禍)를 피해 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G

글·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신세대 소리꾼 '예솔이' 이자람

힙합 대신 판소리로… "젊은층과 소통"

최근 공연계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옛것으로 치부돼 왔던 판소리 공연에 젊은층이 대거 몰려들고 있는 것. 지난해 매회 매진을 기록했던 이자람의 판소리 〈억척가〉가 이번 5월 앙코르 공연과 함께 열기를 더하고 있다. 올해는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쇄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젊은 소리꾼 이자람은 대중에게 '예솔이'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그는 현재 서울대 국악과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판소리 열풍의 중심에 젊은 소리꾼 이자람(33)이 있다. 이자람이라는 이름이 아직 낯선가. '예솔이 이자람' 하면 무릎을 칠 것이다. "예솔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하면 "예!" 하고 달려가던 여섯 살 이자람 말이다. 또 이건 어떤가. 1970년대 혼성 포크 듀오 '버블껌'이 부르던 노래 '연가'와 '짝사랑'. 이 혼성 듀엣 멤버인 이대규, 조연구씨가 바로 이자람의 부모다. 그 이자람이 어느덧 30대가 되어 판소리 분야에서 자기만의 길을 탄탄하게 구축해 가고 있다.

〈억척가〉는 이자람이 쓰고, 이자람이 노래하고, 이자람이 음악감독을 맡은 '이자람표 판소리'다.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원작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을 원안으로 해서 만들되, 배경과 스토리는 사뭇 다르다. 브레히트의 원작은 유럽의 30년 종교전쟁이 배경이지만, 〈억척가〉의 배경은 중국 삼국시대다. 전쟁을 소재로 한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인 〈적벽가〉의 배경을 차용했다.

공연마다 매진… 판소리 부활 이끌어

가장 다른 것은 주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다. 브레히트의 원작은 비극에 뿌리를 두고 온갖 물음표로 수렴되는 부조리극이었다면, 이자람의 〈억척가〉는 극한의 비극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나가면서 "그래도 삶은 위대하다"고 긍정한다.

소리꾼 이자람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다. 2007년에 이자람이 대본, 작창(作唱), 연기의 1인 3역을 맡은 창작 판소리 〈사천가〉와 이자람이 주인공과 음악감독을 맡은 뮤지컬 〈서편제〉도 호평을 받으며 롱런 중이다. 〈사천가〉는 매년 전국 순회공연이 이어지고, 〈서편제〉 역시 2010년 초연 이후 장기 공연 중이다.

〈사천가〉 초연 때만 해도 창작 판소리의 흥행을 점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중의 눈에 이자람은 '사라져가는 판소리의 명맥을 힘겹게 이어가는 젊은 소리꾼'으로 비쳤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자람이 서는 무대마다 20~30대 젊은 관객이 몰리고, 공연이 끝나면 공연장이 떠나갈 듯한 환호와 함께 기립 박수가 이어진다. "이자람!"을 연호하는 극성팬도 상당수다. "판소리라는 장르를 통해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싶다"던 이자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 공연을 보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자람이 30년 동안 판소리를 버리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썼구나'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달라요. 제가 오히려 판소리 덕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몰락했다고 생각해서 안 배운 부분을 저는 운이 좋아서 일찍 배웠고, 그 결과 판소리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 됐잖아요. 판소리를 몰랐던 사람들이 저를 통해 판소리의 매력을 알게 됐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뮤지컬 〈서편제〉의 이지나 연출님이 그러셨어요. '이 공연을 본 관객이 판소리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라고 가볍게 한마디 던질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거야'라고요. 그런 말씀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리거든요. 감격스럽죠."

"판소리라는 장르의 힘을 되살리고 싶어"

이자람은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소리꾼이다. 판소리를 '옛것'으로 치부해 담을 쌓고 아예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 판소리의 매력에 푹 빠지게 한다. 스스로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시도로 만들었다"는 표현을 싫어한다고 했지만, 그는 젊은 대중의 기호를 예리하게 읽어낸다. 그리고 견고하게 쌓아둔 담을 대중 스스로 허물게 만든다. 그것도 서서히.

그가 만든 〈사천가〉는 소리꾼의 구성진 가락과 둥둥 북소리와 함께 어우러지는 추임새 등 판소리 고유의 요소는 굳건히 지키되, 다양한 양악기를 동원하고 젊은 소리꾼들과 함께 무대를 휘저으며 신명을 덧댄다. 판소리의 신명나는 장단과 서양의 리듬악기·타악기의 연주가 어우러지면서 이야기에 재미와 속도감이 붙는다.

뮤지컬 〈서편제〉에서는 처음부터 정통 판소리를 하지 않는다. 관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내고, 그 접점에서 관객의 손을 이끌고 판소리 고유의 영역으로 서서히 들어간다. 관객은 극중 주인공의 감정에 이입되면서 판소리 자체에 빠져들게 된다.

이자람은 '퓨전 판소리', '전통 판소리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수식어를 거부한다. 그에게 추구하는 소리의 세계를 묻자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라며 진지하게 답한다.

"판소리를 통째로 전통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판소리는 하나의 장르지 전통음악이 아니에요. 〈심청가〉 〈수궁가〉 〈홍보가〉 등 예부터 내려오는 판소리를 전통 판소리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만든 〈사천가〉나 〈억척가〉 같은 창작 판소리는 그냥 판소리예요. 21세기에 나올 법한 판소리 말이에요.

〈억척가〉는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원작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을 이자람이 판소리로 만든 작품이다.

1백 년이 지난 후에도 살아남는다면 후대인들이 전통 판소리라고 하겠죠. 문화재법 제정 이후 5개의 판소리만 남고 다른 판소리는 다 소멸했어요. 그 다양한 판소리 작품이 만들어지던 정신이나 시대를 보던 눈, 노래를 보던 안목은 사라지고 작품만 남은 거죠. 저는 판소리라는 장르의 힘을 다시 살리고 싶어요. 귀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판소리의 힘 말이에요."

미국·프랑스 등 해외서도 러브콜 쏟아져

이자람은 공연마다 이번이 마지막인 듯 혼신의 연기를 펼친다. 저렇게 펑펑 울어서 어떻게 연기를 하나 싶을 정도로 눈물이 뒤범벅된 채 연기를 한다. 때론 반달 눈매로 해맑게 웃고, 때론 처진 눈매로 세상살이를 탄식하는 그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 '판소리를 위한 얼굴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의 연기를 본 관객들은 "판소리가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다", "판소리가 지루하고 고리타분하다는 편견을 한 방에 날려보냈다"는 평을 한다.

이자람표 판소리는 국경을 넘어 해외에서도 통한다. 이자람은 〈사천가〉로 2010년 폴란드 콘탁 국제연극제에 공식 초청돼 최고 여배우상을 수상했고,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월드뮤직페스티벌과 워싱턴 페스티벌에도 초청됐다. 2011년에는 파리 리옹극장과 프랑스 민중극장에서 〈사천가〉를 공연했다.

올해에도 해외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이자람은 올 7월 런던 한국문화축제에서 〈사천가〉를, 11월 파리 민중극장과 루마니아 'Hungarian theatre of Cluj'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억척가〉를 공연할 예정이다. G

글 · 김민희 (톱클래스 기자)

‘요정’ 손연재, 세계를 향한 아름다운 도전

리듬체조 월드시리즈서 개인 종목 첫 동메달… 런던올림픽에 밝은 희망

지난 4월 29일 러시아 펜자에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18·세종고), 그가 국제체조연맹(FIG) 월드컵시리즈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메달 획득에 성공한 것이다.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닌 기량도 세계적인 선수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런던올림픽을 불과 석 달 앞둔 상태라 메달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조선DB

손연재는 곤봉을 제외한 후프, 볼, 리본에서 처음으로 28점대 점수를 받아 세계 10위권 선수들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됐다.

손연재는 월드컵시리즈 후프 결선에서 28.050점을 얻어 알리야 가라예바(아제르바이잔), 다리야 드미트리예바(러시아)에 이어 3위에 올랐다.

4월 28일 열린 예선에서는 한국 선수 최초로 후프를 비롯해 곤봉, 리본, 볼 전 종목에 걸쳐 결선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예선 개인 종합 성적은 역대 최고인 4위. 2012 런던올림픽을 석 달 앞둔 시점에서 아주 고무적인 성과였다.

손연재는 평소 리듬체조를 ‘크레파스’라고 묘사한다. “여러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크레파스처럼 자신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란다.

키 1미터65, 몸무게 45킬로그램의 가녀린 체구지만 1미터70 이상의 서양 선수들 앞에서 절대 주눅 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승부욕을 발휘하곤 한다.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 노보고르스크 훈련장에서 예브게니아 카나예바(러시아) 등 세계 굴지의 선수들과 뒤섞여 훈련하면서 외로움도 많이 느꼈지만 오기와 끈기도 배웠다.

손연재를 돕고 있는 IB스포츠 관계자는 “손연재가 어릴 적에는 그냥 감수성이 풍부한 소녀 같았지만 러시아에서 1년 넘게 혼자서 훈련하고 생활을 하면서 훌쩍 큰 느낌이 든다”고 했다. 손연재는 “러시아에서 혼자 버티고 훈련 과정을 이겨내려면 최대한 즐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프랑스 잡지도 “폭발적 성장” 찬사

리듬체조는 종목 특성상 몸무게 1백그램의 변화에도 움직임이 달라진다. 때문에 대회 때는 샐러드, 바나나, 토마토 등만 먹어야 한다. 다이어트는 어느덧 생활이 됐다.

사람의 기본 욕구인 ‘먹고 싶은 충동’은 억제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참는다. 원했던 동작을 완벽하게 해냈을 때의 성취감은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손연재는 “리듬체조는 몸도 마음도 극한으로 밀고 가야 원하던 동작이 나온다”며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정상을 향해 보완하고 노력하고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편해진다”고 했다. 리듬체조의 가장 큰 매력은 “몸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며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손연재는 2011년 9월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개인 종합 11위에 오르는 깜짝 활약으로 런던올림픽행 티켓을 따냈다. 2010년 개인 종합 32위였던 선수가 1년 만에 급성장한 모습은 신선한 충격에 가까웠다.

지난 4월 프랑스 체조연맹에서 발간한 체조 매거진 표지모델로 선정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손연재의 인터뷰도 잡지에 함께 실렸는데, 제목이 ‘폭발적 성장’이었다.

IB스포츠 관계자는 “‘리듬체조’ 종목은 잘 몰라도 손연재가 ‘한국 리듬체조 선수’라는 사실은 안다는 것이 인터뷰를 담당한 프랑스 총리실 홍보부 직원의 말이었다”고 전했다.

세계 10위권 선수와 대등한 경쟁 가능

손연재는 펜자 월드컵시리즈 예선에서 볼(28.125점), 리본(28.500점) 종목에서 28점대 점수를 받았다. 예선에서 27.900점을 받았지만 결선에서는 28.050점을 받은 후프까지 합하면 제일 취약한 곤봉(예선 27.675점)을 제외하고 3종목에서 28점대 점수를 받는 데 성공했다.

손연재는 2010년에는 23~25점대, 2011년에는 26~27점대의 점수를 받았다. 프랑스 잡지 인터뷰 제목처럼 1~2년 사이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체력과 집중력에 있다. 펜자 월드컵시리즈만 놓고 봐도, 예선에서 전 종목 3~4위권에 위치했다가 정작 결선에서는 후프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서 6위권으로 미끄러졌다. 손연재도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펜자 월드컵시리즈 개인 종합 4위가 곧 세계 상위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펜자 월드컵시리즈에는 ‘리듬체조 여제’ 카나예바를 비롯해 알리나 막시멘코(우크라이나·세계선수권 5위), 멜리티나 스타니우타(벨라루스·세계선수권 6위) 등 세계 10위권 선수 6명이 참가하지 않았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면 손연재는 아직도 세계 8~11위권이라고 봐야 한다.

월드컵시리즈 첫 동메달 획득이 곧 런던올림픽 메달 청신호를 밝히는 의미는 아니라는 뜻이다. 런던올림픽 리듬체조 종목에는 개인 종합과 단체전에서만 두 개의 금메달이 있을 뿐, 각 종목별 메달은 따로 없다.

대한체조협회

손연재는 올 2월 모스크바 리듬체조 그랑프리대회 후프 종목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그래도 손연재가 4종목 중 3종목에서 28점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세계 10위권 선수들과 비슷한 점수대에서 대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지금껏 동양인 선수가 세계 리듬체조 10위권 내에 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일본이 많은 투자를 해왔지만 단체 종목이 아닌 개인 종목에서는 빛을 못 봤다.

그만큼 동양 선수가 뚫기 어려운 종목이 리듬체조이다. 수구 구사 능력이나 표현력에서 서양 선수들을 따라잡기가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손연재는 황무지나 다름없는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 종합 결선 진출을 1차 목표 삼아

손연재는 런던올림픽에서 개인 종합 결선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년 세계선수권 순위가 11위였으니 불가능한 도전은 아니다. 체조협회 관계자는 “손연재가 런던올림픽에서 개인 종합 결선에만 진출해도 대단한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개인 종합 결선에만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실수 하나에도 점수가 많이 깎이는 게 리듬체조 종목이기 때문이다.

손연재는 “메달 획득은 모든 선수의 꿈”이라며 “현실적으로 메달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래도 “가능성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메달을 따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세계를 향한 손연재의 아름다운 도전은, 8월 9일 영국 런던 웸블리 아레나에서 꽃망울을 티운다. G

글·김경무 (한겨레신문 스포츠 선임기자)

2013년 동해 울릉도·독도에도 기후변화감시소가 들어선다. 1996년 서해 안면도, 2008년 남해 제주에 이어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가 완공되면 신뢰성 높은 자료를 생산해 세계기상기구(WMO)에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 주장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독도 공기 5초마다 분석… 동해 기후 감시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착공… 안면도·제주 이어 세번째

대한민국 동쪽 끝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지켜볼 만한 새로운 '독도 지킴이'가 하나 늘었다. 기상청은 지난 5월 10일 국내 동쪽 끝인 울릉도와 독도에 온실가스 변화 등 지구 기후변화를 관측할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착공식을 열었다. 독도에 기상장비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릉도에서 관광선을 타고 출발한 지 2시간 30분이 지난 5월 8일 오전 10시. 파도만 넘실대던 망망대해에 갑자기 바위섬 하나가 물속에서 떠오르듯 나타났다. 4백여 명의 관광객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독도에 도착했다!"

안개가 자욱한 잔뜩 흐린 날씨였지만 관광객들은 선착장에 서서 함성을 외치며 사진을 찍었다. 태극기를 가져와 독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다. 채 30분도 되지 않는 독도 체류시간 동안 대부분 중·장년층인 관광객들은 어린애처럼 즐거워했다. 이날 독도를 찾은 김우종씨(63)는 "일년에 몇 번 들어올 수 없다는 독도에 직접 오니 더없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기후변화감시센터는 안면도와 제주 고산 두 곳에 설치돼 있다. 기상청 임병숙 기후변화감시센터장은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설치로 한반도 내에서 발생한 모든 대기정보의 추적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대기 상태를 안면도에서 분석하고 태평양에서 유입되는 공기는 제주 고산에서, 한반도를 빠져나가 일본으로 향하는 대기는 울릉도·독도에서 분석하는 '한반도 기후감시망'이 완성됐다는 의미다.

내년 완공되면 한반도 기후감시망 완성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는 내년까지 42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울릉도기상대 내 부지에 연구동과 연구지원동 등 2개 동, 1천1백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된다. 우선 온실가스와 에어로졸, 산성비, 자외선 등 기후변화 4개 분야 분석부터 시작한다. 기존에 설치된 안면도 및 제주 고산감시소는 온실가스와 반응가스, 에어로졸, 대기복사, 산성비, 오존, 자외선 등 기후변화 6개 분야 전체를 분석하고 있다.

독도에는 이산화탄소(Co_2)와 메탄(CH_4) 농도를 측정하는 무인 장비가 설치됐다. 이는 독도에 설치된 첫 기상장비로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현판식 후 정식 운영될 계획이다. 해발 98.6미터인 동도 꼭대기에 건립된 KT 송전탑 위에 있는 원격관측시스템은 독도 공기를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로 실시간 전송한다.

한반도 기후변화 적극적 대응 가능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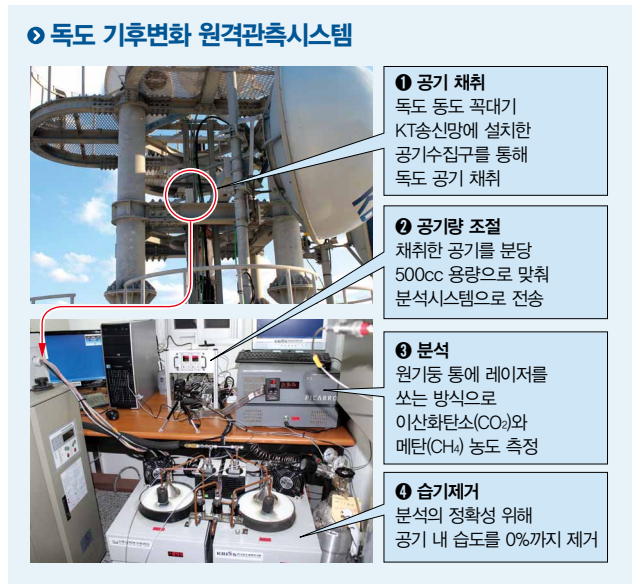
독도에 설치된 관측시스템은 관리자 없이 운영된다. 우선 송전탑 위에 설치된 공기채집구를 통해 독도 상공에 떠다니는 공기를 수집한다. 이렇게 모인 공기는 제습장치에 들어가 습기가 전혀 없는 상태로 바뀐다. 습기가 함유된 공기를 분석할 경우 온실가스 측정값의 오차범위가 커지기 때문이다.

제습된 공기는 양(量)을 분당 5백시시(CC)로 조절한다. 이후 측정 장비인 공동분광감쇠기(CRDS)에 들어가 반사거울이 달린 원기둥 안에 모인 공기를 향해 레이저를 발사해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측정하게 된다. 해당 무인관측시스템은 하루 24시간 내내 외부 통제 없이 이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4월 관측 결과에 따르면 독도에서 측정되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4백3피피엠(ppm) 정도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다. 김상훈 기상청 기후변화감시센터 주무관은 "독도에서는 5초에 한 번씩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하고 있다"며 "해당 자료를 축적해 동해지역의 기후변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릉도·독도 관측소 설치가 단순히 '상징적 의미'만 가진 것은 아니다. 한반도 기후변화가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른 만큼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미도 가진다.

울릉도·독도 감시소보다 먼저 설치된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 관측치에 따르면 국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해 3백95.6피피엠으로 1999년의 3백70.7피피엠보다 24.9피피엠 늘었다. 이는 전 지구 평균농도인 3백90.5피피엠에 비해 높은 수치다.

기상청 신임철 기후변화감시센터 연구관은 "전 세계적으로 과거 5천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가 15피피엠 정도 올랐지만 안면도 센터에서는 12년 만에 25피피엠 올랐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 정도로 기후변화가 빠르다"고 말했다. 기상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존의 4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경우 온대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아열대 기후가 열대 기후로 바뀌는 등 기후대 변경이 이뤄진다.

독도 기후변화 원격관측시스템

❶ 공기 채취
독도 동도 꼭대기 KT송신망에 설치한 공기수집구를 통해 독도 공기 채취

❷ 공기량 조절
채취한 공기를 분당 500cc 용량으로 맞춰 분석시스템으로 전송

❸ 분석
원기둥 통에 레이저를 쏘는 방식으로 이산화탄소(CO_2)와 메탄(CH_4) 농도 측정

❹ 습기제거
분석의 정확성 위해 공기 내 습도를 0%까지 제거

육지에서 고립된 섬 지역이라는 점도 울릉도와 독도에 기후변화 관측소를 만든 이유 중 하나다. 기후변화를 관측하는 감시소는 전 세계적으로도 섬이나 산악지대 등 인간 활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에 설치된다.

고립된 섬인 울릉도·독도는 관측 최적지

세계기상기구(WMO)가 지정한 지구대기감시(GAW) 프로그램에 따라 지구 기후변화를 관측하는 미국 마우나로아 관측소와 일본 미나미토리(南鳥)섬 관측소는 각각 해발 3천4백미터 산악지역과 육지에서 2천킬로미터 떨어진 섬에 건립됐다.

신임철 연구관은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의 대기까지 바뀔 때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며 독도는 이같은 기후변화를 측정하기에 최적인 청정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향후 울릉도·독도 감시소에 현재 측정하지 못하는 반응가스와 오존 등의 관측 설비도 설치해 국제 기준에 맞는 곳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이곳에서 관측하는 자료도 매년 발간되는 '지구대기감시 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의 관측 여건이 좋은 만큼 앞으로 WMO가 인정하는 지역급 관측소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G

글·박재명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맞춤형 서비스? 실제론 정보편식 강요

‘빅브러더’ 돼 가는 인터넷 기업 제어에 사회 구성원이 나서야

최첨단을 걷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서는 인류가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기업들은 매순간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검색과 결합하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의 폐해가 거론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지방의 한 도시에서 여대생이 실종됐다. 경찰이 은밀히 수사 중이라 아직 언론에 발표되진 않았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범인은 불안에 떨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아날로그 시대라면 범인은 신문을 뒤지고 방송의 뉴스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시대는 그럴 필요가 없다. 검색이 있기 때문이다.

범인은 수시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볼 것이다. 검색을 통해 경찰이 어디까지 조사했는지 다 알 수 있다. 하지만 비밀수사라면 검색결과 나오는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때문에 범인은 더 자주 더 자세한 검색을 할 수밖에 없다. 범행 장소, 날짜, 시간까지 검색어로 사용하던 범인은 결국 피해자의 이름까지 찾아보게 된다.

이런 심리를 역으로 이용한다면 검색 사이트를 통해 용의자를 찾아낼 수 있다. 범인이 아니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을 검색하는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이 미궁에 빠진 여대생 실종사건을 처리할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포털의 검색어 자료를 확보하여 범인 검거에 참고한 일이 있다.

빅브러더가 감시하는 투명한 세상

이 일은 경찰의 과잉수사 논란과 검색행위를 개인정보로 취급하여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왔지만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포털들은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했는지 밝히지 않았고 경찰은 수사에 얼마나 활용했는지 비밀에 부쳤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인터넷에서의 활동기록은 보호받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일러스트 · 신명호

‘빅브러더(Big Brother)’ 논란은 철학적인 논의나 영화 속의 일이 아니다.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의 모든 활동이 기록되고 있다. 곳곳에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되어 있고 수많은 자동차에도 블랙박스가 달려 있으며 2천만명 이상이 카메라 달린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있다. 누가 조금만 잘못해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혀 인터넷에 올려진다.

최근 학교 운동장에서 여학생을 친 운전자의 블랙박스가 차주도 모르게 인터넷에 공개된 일이 있고 달리는 차 트렁크에서 뛰쳐나온 개가 죽은 채 끌려가는 모습이 찍히는 바람에 ‘악마 운전사’가 된 경우도 있다. 잘잘못을 떠나 나도 모르게 여론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증가한 것이다. 일단 영상이 공개되면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비정상으로 보이는 행동은 장난으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스마트폰의 위성항법장치(GPS), 전화망, 와이파이 연결 기능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카드 사용 기록, 하이패스 사용 정보,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 기능, 인터넷 사용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 등을 합하면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인터넷의 개인정보 추적 기능에 비하면 별것 아닌 정보에 불과하다.

SNS 세상에 “프라이버시는 없다”

SNS는 실제 인맥을 온라인에 올려놓은 것이다. 때문에 실명을 기본으로 한다. 나이, 성별, 주소 등으로 내가 누군지를 밝혀야 같은 소속의 다른 회원과 교류를 할 수 있다. 개인들 간의 만남뿐 아니라 동창회 같은 그룹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출신학교와 취미도 밝혀야 한다.

가장 인기 있는 SNS인 페이스북은 한 개인의 삶 전체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 부모들이 자식들이 태어난 모습부터 성장과정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더라도 페이스북 페이지는 그대로 이어받아 계속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한 사람의 일대기를 알고 싶으면 SNS를 방문하면 되는 것이다.

페이스북 창립자 저커버그는 “프라이버시는 없다”란 말로 이런 현상을 요약했다. SNS 업체들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타깃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광고주들은 인종, 성별, 나이, 지역, 출신학교 등의 정보를 활용한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 빈민가 지역에 거주하는 흑인은 그들이 선호하는 제품 광고를 보게 되며, 맨해튼에 거주하는 백인 중년층에게는 고급 제품 브랜드 광고가 노출되는 것이다.

점차 정교해진 인터넷 서비스들은 개인의 활동내역을 교차 체크하여 정밀한 개인별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검색 또한 마찬가지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소셜 검색은 같은 검색어로 검색하더라도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각각의 사용자에게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검색엔진은 사용자가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 스포츠와 정치 중에서 어떤 것에 더 관심이 많은지를 체크하여 검색결과를 재배열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폭주 막을 기준은 ‘상식’

이런 개인화는 정보의 편식을 가져온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보다는 자극적인 정보를 주로 서비스하게 되면 사회 구성원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좋아하는 것만 즐기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결국 서로 의견이 다른 집단끼리 소통이 불가능해져 사회 여론이 극단적으로 나누어지게 될 위험이 높다.

각각의 사용자를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행위가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 개인화 서비스란 사용자의 기호를 알아채고 마음까지 미루어 짐작하는 훌륭한 비서가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들은 결국 무조건 “좋아요”만 외칠 뿐 절대로 “안 돼요”라고 말하지 않게 된다.

각 업체는 서로 개인화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탓에 올바른 서비스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 IT 업체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결국 사회 구성원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그 판단의 기준은 결국 상식일 것이다.

빅브러더화해 가고 있는 인터넷 기업을 제어할 방법은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보는 것이다. 개인화 서비스가 발전하더라도 꼭 알아야 할 사회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인이 원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도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프라이버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상식이기 때문이다. G

글 · 김인성 (IT 칼럼니스트)

빅브러더(Big Brother)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는 거대 권력을 일컫는 말이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등장한 용어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기 쉬워져 이를 경고하는 의미에서 자주 쓰인다.

몽산포 해변의 갯벌체험.
맛조개와 골뱅이 잡는 손맛이 쏠쏠하다.

알짜배기 태안 여행

뜨거운 태양이 젊은 연인을 반기고 파란 바다와 빨간 해당화에 취한다

태안은 서해안의 보물창고 같은 매력을 품고 있다. 이름난 해수욕장은 물론 꾸지나무골, 신두리 해수욕장처럼 비경을 간직한 명소도 많다. 솔숲을 간지럽히는 촉촉한 모래밭은 도시인에게 세상시름을 떨쳐주기에 충분하다.

태안은 '기적의 여행지'다. 2007년 발생했던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되돌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태안의 바다와 해변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름다운 자태로 여행객들을 맞이한다. 하나같이 넓은 백사장과 울창한 숲을 품고 있는 해변은 여행자들이 잠시 쉬어가기에 더없이 매력적이다. 그래서 6월의 태안은 설렘을 안기는 보물창고와 같다.

이름난 해수욕장만 해도 20곳이 넘는다. 만리포, 천리포, 학암포, 연포 등 이름난 해수욕장은 물론 꾸지나무골, 샛별해수욕장처럼 꼭꼭 숨어 비경을 간직한 곳들도 많다. 태안의 위쪽 이원반도에서 학암포, 신두리, 만리포, 천리포, 파도리, 연포, 몽산포, 청포대에 이르기까지 리아스식 해안선이 들쭉날쭉 그림처럼 펼쳐진다.

이 중에서도 몽산포와 청포대 해수욕장은 약 13킬로미터에 걸친 긴 백사장과 푸른 송림이 시원스레 펼쳐져 있다. 이곳은 썰물 때면 3킬로미터 폭으로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경사가 완만하고 또 수온이 높아 비가 내리는 날에도 해수욕을 즐길 수 있을 정도다.

몽산포 · 청포대는 손맛 좋은 조개잡이 인기

청포대 해수욕장과 연결돼 있는 몽산포는 백사장의 길이가 끝이 안 보일 정도이며, 소나무숲이 전국에서 최상인 곳이기도 하다. 몽산포 해수욕장엔 오토캠핑장이 들어서 있다. 태안반도에 최초로 조성된 몽산포 오토캠핑장은 캠퍼들에게 가평 자라섬이나 춘천 중도 캠핑장과 더불어 캠핑의 성지로 추앙받고 있다.

이원반도의 땅끝에 있는 만대포구. 어선에서 즉석으로 횟감을 구입할 수 있다.

청포대 해수욕장은 기암괴석과 넓은 백사장 등이 시원스럽게 펼쳐져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다. 청포대란 명칭 그대로 주변의 울창한 송림과 넓은 백사장으로 편안함을 준다. 좌우로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해변은 도시를 벗어난 쾌감을 갖게 할 정도로 시원하다. 고운 모래사장으로 밀려오는 하얀 파도는 잔잔한 여운을 선물한다.

몽산포와 청포대는 갯벌이 좋아 조개잡이 갯벌체험장으로 유명하다. 5월에는 모시조개와 대나무같이 생긴 맛조개가 한창이다.

썰물로 해변에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갯벌이 그 바닥을 드러내는데 갯벌 속에서 바지락, 백합 등 조개들을 쉽게 구경할 수 있다.

갯벌의 생생한 모습을 구경할 수 있어 자연 학습장으로 손색이 없다. 특히 청포대 갯벌은 발이 빠지는 뻘이 아니기 때문에 맨발이나 장화를 이용해야 할 필요도 없이 신발을 신은 채로 그냥 들어갈 수 있다.

몽산포와 청포대 갯벌체험은 특별한 입장 절차나 요금이 없고 물때만 확인하면 된다. 요즘(5월 15일 기준)은 11시경부터 3시 정도가 썰물 때이다. 호미, 모종삽, 면장갑, 샌들, 그물 자루나 플라스틱 용기만 준비하면 된다. 6월 초순에는 바지락이나 모시조개, 맛조개, 생합 등이 잡히지만 어민들을 위해 다량으로 잡지 않는 에티켓도 잊지 말자.

태안읍에서 603번 지방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원반도가 시작되는데 그 최북단에 '가다가다 만곳' 만대포구가 있다. 태안읍에서부터 31킬로미터(약 30분 소요) 정도 떨어져 있는 일명 태안 이원반도의 땅끝마을이다. 포구에 기항하는 고깃배는 40여 척 정도. 꾸지나무골이나 사목해변 등 이원반도 내의 해수욕장을 찾는 여행자들은 이곳에서 횟감이며 매운탕거리를 구입한다.

하지만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만대포구가 제법 알려져 있다. 고깃배를 빌려 바다로 조금만 나가면 물 좋은 포인트들이 많다고 한다. 방파제에 서면 바다에 점점이 떠 있는 섬이 보이는데 건너편으로 팔봉면 구도가 보이고, 옆으로 대산반도의 석유화학단지가 보인다. 썰물 때 드러나는 드넓은 가로림만의 갯벌에선 바지락 등 풍성한 갯것들이 잡히고 6월엔 갯벌 낙지잡이가 성황을 이룬다. 바로 앞바다의 삼형제 바위도 썰물 때면 걸어갔다 올 수 있다.

만대포구에서 지방도로로 나오다 이정표를 보고 언덕길로 7백 미터가량 들어가면 꾸지나무골 해변이 나타난다. 솔숲동산이 해변 가운데 있고 그 양편으로 백사장이 뻗어 있다.

태안반도의 숨겨진 속살 만대포구 · 꾸지나무골

꾸지나무골 해수욕장은 꾸지나무가 많아 생긴 지명. 꾸지나무는 큰 가시가 달린 뽕나무과 나무로 가을에 오디처럼 빨간색 열매가 달린다. 옛날 불을 때서 소금을 구워 만들 적에 죄다 땔감으로 써버려 지금에 와서는 꾸지나무가 많지 않다. 잘생긴 소나무가 방풍림처럼 빼곡하게 늘어선 백사장은 신비감마저 자아낸다. 해변의 길이는 1킬로미터가 넘으며 폭도 50미터에 달한다. 모래사장 가운데 바위지대가 있어 해변 풍경도 이채롭다.

꾸지나무골 해수욕장과 만대포구는 연인들이 데이트를 즐기기 좋은 히든 코스다. 대개 태안을 찾았지만 이원반도의 끝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연인들이라면 반드시 이곳을 찾아보자. 꾸지나무골에서 단 둘이서 해수욕을 즐길 수도 있고 만대포구의 아름다운 일몰을 배경으로 사랑을 약속해도 좋다.

5월부터 7월까지 태안반도 곳곳에 빨간 해당화가 활짝 핀다. 인적 드문 바닷가에 애처로이 피어 갯바람에 하늘거리는 해당화는 진홍빛 수를 놓은 듯 해변을 붉게 물들인다. 한 줄기 실바람에 해변 마을은 마치 향수를 뿌려놓은 듯 순식간에 꽃향기로 가득 찬다. 자연의 향기다. 태안반도 해변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꽃이지만 이토록 해변의 정서를 대변해주는 꽃도 드물다.

신두리 해변엔 붉은빛 해당화 군락 이뤄

이원반도의 땅끝 마을 만대에서부터 안면도 영목에 이르기까지 이곳저곳 할 것 없이 지천으로 피어 있는 꽃이 바로 해당화다. 해변이나 조그마한 언덕길, 산모퉁이, 어디를 가나 해당화가 수줍은 듯 반긴다. 이처럼 해당화는 태안반도의 상징처럼 여름 해변을 진분홍 꽃으로 물들인다.

특히 신두리 해변과 해안사구의 해당화는 해변을 따라 군락을 이룬다. 해당화는 주변의 신록과 더불어 붉은빛을 더욱 발해 가장 아름답다. 해안 주변은 빨간 해당화 군락이 형성되어 있어 파란 바다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곳으로 많은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신두리 해수욕장 또한 5킬로미터에 이르는 넓은 백사장이 무척 인상적이다. 이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많지 않아 아직까지 깨끗한 자연의 상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장소이다. 5월에 가면 모래언덕이 아니라 드넓은 초원으로 바뀐다. 이곳에서 이국적인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보자. 물론 해당화 만발한 초원을 걸으며 데이트를 즐기는 것도 잊지 말자. G

글과 사진 · 유철상 (여행작가)

여행수첩

찾아가는 길 태안군은 서울 및 수도권 출발의 경우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 이용, 32번 국도 타고 서산을 거쳐 77번 국도를 따라 직진하면 된다. 부산이나 대구 출발의 경우 경부고속도로 천안IC로 나와 21번 국도를 이용하면 된다. 청포대와 몽산포 해수욕장은 홍성IC 이용 간월도 A · B 방조제를 지나 원청삼거리에서 태안 방향으로 우회전 한 후 5킬로미터 직진하면 나온다. 이원반도는 태안읍에서 603번 지방도로를 타고 31킬로미터 정도 직진, 신두리는 원북에서 좌회전한 후 소근리에서 다시 좌회전하면 만날 수 있다. 꾸지나무골은 만대포구 가기 직전 왼편에 있다.

먹을 곳 **이원식당**(☎041-672-8024)은 이원반도에서 소문난 맛집이다. 박속낙지탕은 하얀 박속과 낙지를 한데 넣어 끓이는 태안만의 별미. 이원반도의 낙지가 유독 인기를 끄는 것은 갯벌에서 잡히는 작은 낙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박속과 함께 양념을 넣고 약 3분 정도 싱싱한 낙지를 넣어 살짝 데친 후 꺼내 갖은 양념에 찍어 먹는다. 일종의 낙지 샤브샤브다. 낙지를 먹고 밀국(칼국수)을 넣어 5분 정도 끓이면 시원한 국물이 담백해진다. 박속밀국낙지탕 1만5천원. 이원면사무소 옆.

잠잘 곳 **하늘과 바다사이 리조트**(☎041-675-2111)는 신두리 해수욕장 입구에 새로 지어진 별장형 펜션. 리조트 사이에 간이 급수대와 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리조트는 해안선을 따라 2동이 있고 한 동은 별장처럼 떨어져 있다. 해안가 리조트에서 문을 열면 바로 앞으로 파도가 밀려왔다 쓸려나가는 낭만을 느낄 수 있다. 숙박요금은 주말 10만~18만원 선. 신두리 해수욕장 입구.

우럭회와 박속낙지탕(왼쪽 위 · 아래). 청포대 해변은 드넓은 모래해변이 펼쳐져 모래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이 많다.

신두리 해변(왼쪽). 해당화가 곱게 핀 신두리 초원과 신두리 해수욕장.

저소득 가정에 주는 '근로장려금' 아세요?

국세청서 안내문자 받은 사람만 대상… 올해는 휴대전화로도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들은 거주지가 불투명하고 근무지 변동이 잦아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신청 대상자들이 대부분 일일근로자여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웠고요. 그래서 휴대전화 신청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국세청 소득지원과 이준호 사무관의 말이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서면신청 이외에 ARS전화,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휴대전화 버튼 클릭만으로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액은 부양자녀수에 따라 정한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70만원에서 2백만원까지다. 단,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휴대전화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에서 5월 16일까지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하면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통해 안내문자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휴대전화 신청 데이터요금도 정부서 부담

휴대전화 신청의 경우 일반폰과 스마트폰 모두 신청가능하나 데이터통신 불능 단말기와 데이터통신 차단서비스 이용자 등의 휴대전화는 제외된다. 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낸 신청안내 문자에 따라 2~3회 휴대전화 버튼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마칠 수 있다.

휴대전화 신청 안내문자가 본인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발송되더라도 1회만 신청 가능하다. 한 번 신청한 이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결과는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휴대전화로 신청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요금은 국회의 저소득층 예산지원 결정으로 정부에서 부담한다.

또한 국세청에서 보낸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ARS전화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준비한 후 전화신청센터에 전화해 안내 내용에 따르면 된다.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며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개별 발송한 신청안내문에 안내돼 있는 관할세무서 담당자 또는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MO)를 이용해 문의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 완료 후 심사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되면 9월 말까지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된다. 수령방법을 현금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 글 · 박은지 인턴기자

문의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www.eitc.go.kr
근로장려금 전화신청센터 ☎1544-9944 | 세미래 콜센터 ☎126

왕의 권력을 탐하지 말라

조선시대 공부를 하면서 요즘 새롭게 생긴 버릇 중에 하나가 사람 이름을 유심히 뜯어보는 재미다. 오늘 소개하는 **이거이**(李居易·1348~1412)의 경우도 흥미롭다. 居易(거이)! 아마도 그 이름을 지어 주면서 편안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넣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 십중팔구 정반대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이의 삶도 참으로 파란만장했다.

고려 말 이거이의 집안은 그런대로 괜찮았다. 그도 문하부 참찬사를 역임했으니 전도유망한 인물이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의 두 아들 중 한 명인 이저(李佇)는 이성계의 장녀 경신공주와 결혼했고 이어 또 한 명 이백강(李伯剛)은 이방원의 장녀 정순공주와 결혼했다. 이는 고려 때의 결혼풍습인데 아버지 이성계와도 사돈이었고 아들 이방원과도 사돈이었던 셈이다.

1차 왕자의 난은 이거이에게는 중대한 갈림길이 아닐 수 없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성계와 이방원 부자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이거이로서는 아버지 사돈과 아들 사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상황판단에 뛰어났던 이거이는 아들 사돈 이방원의 길을 선택한다.

다행히 이성계의 사위 이저도 장인이 아닌, 아버지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태종 이방원의 노선에 합류해 1, 2차 왕자의 난 이후 공신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당연히 이백강은 장인의 길이자 아버지의 길인 태종 이방원의 노선에 섰다. 특히 2차 왕자의 난 때는 이방원을 측근에서 모시며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다소 거만했던 아버지와 달리 "청렴하고 결백하며 온화하고 근면했다"고 실록은 적고 있다. 그 덕분에 당시로서는 장수했다고 할 수 있는 71세에 세상을 떠났다.

한편 이거이는 사돈 이성계의 후광으로 서울시장에 해당하는 한성부 판사 등을 지내다가 1차 왕자의 난 때 큰 공을 세워 정사공신으로 책봉되고 다시 좌명공신으로 책봉된 이후 본격적으로 출세의 길에 들어선다. 게다가 최고의 실력자 이방원과도 사돈관계였으니 영의정 부러울 것 없는 권력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이거이는 오판했다. 자신의 권력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다. 그것이 이방원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깜빡 잊었던 것이다. 당시만 해도 지방행정제도가 안정돼 있지 않아 왕실의 형제들이 각 도를 나눠서 맡았다. 이는 마치 중국에서 황제가 아들들에게 나라를 나눠 주고서 공(公)이나 후(侯)로 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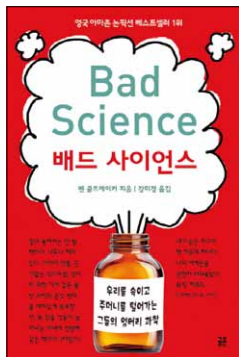
고려풍습으로 이성계·이방원과 사돈 맺어
왕자의 난 때 두 아들과 함께 이방원에 줄 서
공신 책봉돼 영의정 부럽지 않은 권력 누리다
사병혁파로 기반 잃자 불만 품다 들켜 제거돼

정종 1년(1399년) 11월 1일 정안공 이방원은 강원도와 동북면(함경도)을, 익안공 이방의는 경기도와 충청도를, 회안공 이방간은 풍해도(황해도)를, 그리고 상당후 이저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맡았다.

해당 도의 군권을 맡은 것은 사실상 그 도에 대한 전권을 맡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아들 이저가 경상도와 전라도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이는 중앙의 군사지도부에도 참여했다. 이러니 얼핏 보면 이방원의 권력이나 이거이 부자의 권력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6개월쯤 후인 이듬해 4월 이방원은 권근을 앞세워 전격적인 사병혁파를 단행한다. 한순간에 이거이 부자의 권력기반도 날아갔다. 게다가 이거이 부자는 이에 불만을 품었다가 발각됐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이거이 부자는 한때의 영광을 모두 놓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했다. Ⓖ 글 · 이한우 (조선일보 기획취재부장)

〈배드 사이언스〉

건강에 좋은 약? 그런 건 없다!

벤 골드에이커 지음
강미경 옮김
공존 · 1만8천원

언론 매체에 건강 관련 기사가 넘쳐난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치다가 예전에 앓은 적이 있는 질환에 대한 기사나 방송이 나오면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대체로 무엇이 어디에 좋더라는 내용이다. 나름의 비판의식이 있는 교양인이라도 별 의심 없이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오메가3에 관련된 기사를 읽고 잠시 충격받은 적이 있다. 먼저 한 책에서 아직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으로 오메가3를 지적해놓은 것이다. 한 신문 건강칼럼에는 오메가3의 효능 실험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갑자기 얼마 전 구입한 오메가3가 생각났다(사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며칠 전 텔레비전 뉴스에는 오메가3가 여기저기에 좋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사이비 과학으로 무장한 숱한 사례 제시

〈배드 사이언스〉는 주로 건강과 관련한 분야에서 발견한 거짓 과학을 폭로한 책이다.

과학의 이름으로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입증해 소비자를 설득하고 있으나, 알고보면 지극히 비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했고, 그만큼 효능이 지극히 의심스럽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저자는 이런 내용을 칼럼에 써 고소당한 적이 있다. 넉살이 좋아서인지 용기가 넘쳐서인지, 저자는 그런 경험조차 유쾌하게 글에 녹여내고 있다.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을 흥미롭게 읽게 하는 힘이 여기서 비롯하는 듯싶다.

이 책에 소개된 가장 어이없는 사건은 아프리카에서 벌어졌다. 에이즈가 번져나가는 아프리카에서 한 자연요법주의자가 기존 에이즈치료제보다 종합비타민제가 더 효과 있다고 선전했다. 이 주장은 신중히 검토되지 않은 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수용됐고, 그 대가로 에이즈 피해는 더욱 커졌다.

이 책에는 사이비 과학으로 무장한 위약들의 사례가 숱하게 나온다. 처음에는 집중해서 읽다가 나중에는 약간 지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는 거 많은 똑똑한 수다쟁이한테 붙잡혀 일장 연설을 듣는 듯하다.

이 와중에 저자는 건강식품의 개발과 홍보에 공통된 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지적한다. 이를테면 대체로 학위를 내세우나 알고 보면 제대로 된 대학이 아니다. 현직 교수라고 하나 실제는 재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에 막대한 지원금을 준 대가로 얻은 직책이다. 논문 형식으로 효능을 입증했으나,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만 취사선택했거나 참고문헌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칼럼이 많았다.

"진리는 이미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

건강식품이나 영양요법에 관련된 거짓 정보가 나쁜 이유는 당연히 효능이 없거나 과장되거나 실제로 건강을 해쳐서다. 그런데 저자는 또 다른 이유를 덧붙여 시선을 끈다.

〈배드 사이언스〉는 건강을 지나치게 개인 문제로 소급해버린다. 그걸 먹으면 건강한데 안 먹어서 몸이 나빠졌으니 무지하고 게으른 그 사람 탓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질병을 일으키는 사회적 원인과 생활양식과 관련한 원인을 해결하는 진정한 공중보건"의 가치를 희석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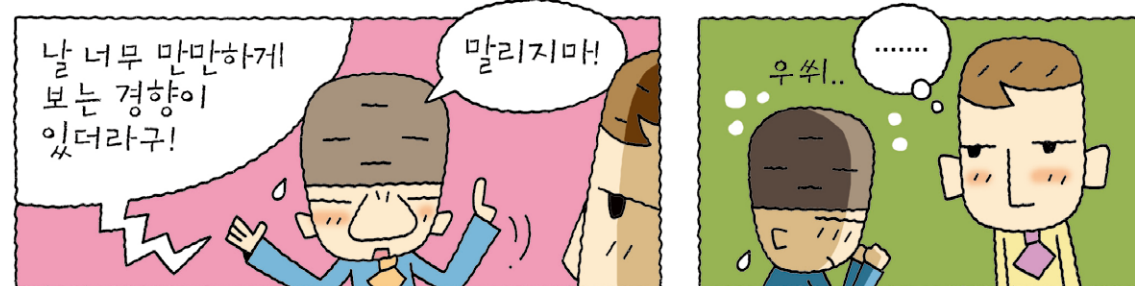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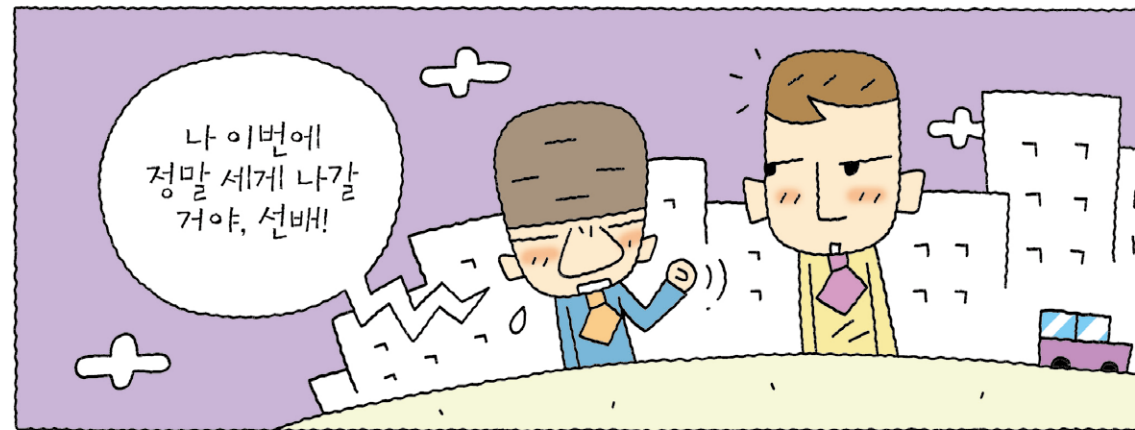
책을 읽다 순간 답답해진다. "이 약 저 약이 몸에 좋고, 만병통치라하는 말도 믿지 말라. 이 음식 저 음식 먹으면 여기저기에 좋다는 말도 믿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며 저자한테 대거리하고 싶다. 저자도 눈치챈 듯 그 답을 말했다. "속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니, 꼭 기억하시길!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평생을 살라는 것이다. 즉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비만을 피하고, 과음하지 말고, 금연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기초적이고 단순한 요인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

늘 느끼는 바이지만, 진리는 단순하다. 문제는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이지만.

글 · 이권우 (도서평론가)

진정 오래 남는 것은?

글과 그림 · 최영순

싸움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싸움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데일 카네기의 〈행복론〉 중에서

2012 춘천마임축제는 현대 마임, 신체연극, 야외 설치, 공연 등이 어우러지는 현대공연예술축제다.

태초에 몸이 있었고 춘천엔 마임이 있다

〈2012 춘천마임축제〉

춘천마임축제가 '태초에 몸이 있었다'를 슬로건으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춘천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공연과 난장이 결합된 형태로 개막난장인 '아!水라장'이 춘천시내 중심부인 중앙로에서 펼쳐진다. '물'을 주제로 '수신과 화신'의 대결과 화해라는 새로운 신화를 창조한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제공연과 퍼레이드 등도 마련된다.

해외 극단의 공연도 볼 수 있다. 소극장 축제극장몸짓에서는 캐나다 극단의 '인 사이드&아우라'가 오는 22일부터 3일간 상연된다. 움직이는 사람의 몸 위에 영상이 입혀지는 작품이다. 몸과 영상이 서로 중첩되거나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린이 공연으로는 한일합작 극단의 '장난감연구실'이 상연된다. 장난감연구실을 배경으로 판토마임, 서커스, 마술, 아크로바틱 등이 진행된다.

전시 등의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Drawing 마임을 품다' 전시는 춘천마임축제에서 마임공연을 보고 그린 크로키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다. 올해 전시에는 작년 행사 외에 외국 초청작들의 영상을 보고 회원들이 그린 크로키화를 함께 전시한다. 춘천 MBC 내 카페 알뮤트에서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배우와 관객, 스태프가 함께 어울리는 파티 형식의 페스티벌 클럽이 매일 저녁 9시 부터 축제극장몸짓 일대에서 열린다.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 등도 있다. G

정리 · 박은지 인턴기자

일시 5월 20~27일 **장소** 강원 춘천시 축제극장몸짓 **문의** ☎033-242-0571

축제 2012 연등회 연등축제

2012 연등회 연등축제가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거리 등에서 열린다. 연등과 대형 장엄등인 사천왕등, 코끼리등, 용등, 비천상등 등 10만여 개의 개인등이 어우러져 거리를 밝힌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통등 전시회, 연등행렬, 연등놀이 등이 진행된다.

일시 5월 18~20일 **장소** 서울 종로구 종로거리
문의 ☎02-2011-1744

영화 천국의 아이들

학교폭력이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열다섯 문제아 중학생들의 이야기를 그린 성장영화가 개봉한다. 기간제 교사인 유진은 교장으로부터 학생들을 데리고 방과후 동아리 활동을 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아이들은 폭력사건으로 축구부에서 제명되거나 길에서 담배를 훔치는 문제아들이다. 이들을 데리고 유진은 구청이 주최하는 장기자랑에 나가기 위해 뮤지컬 공연을 연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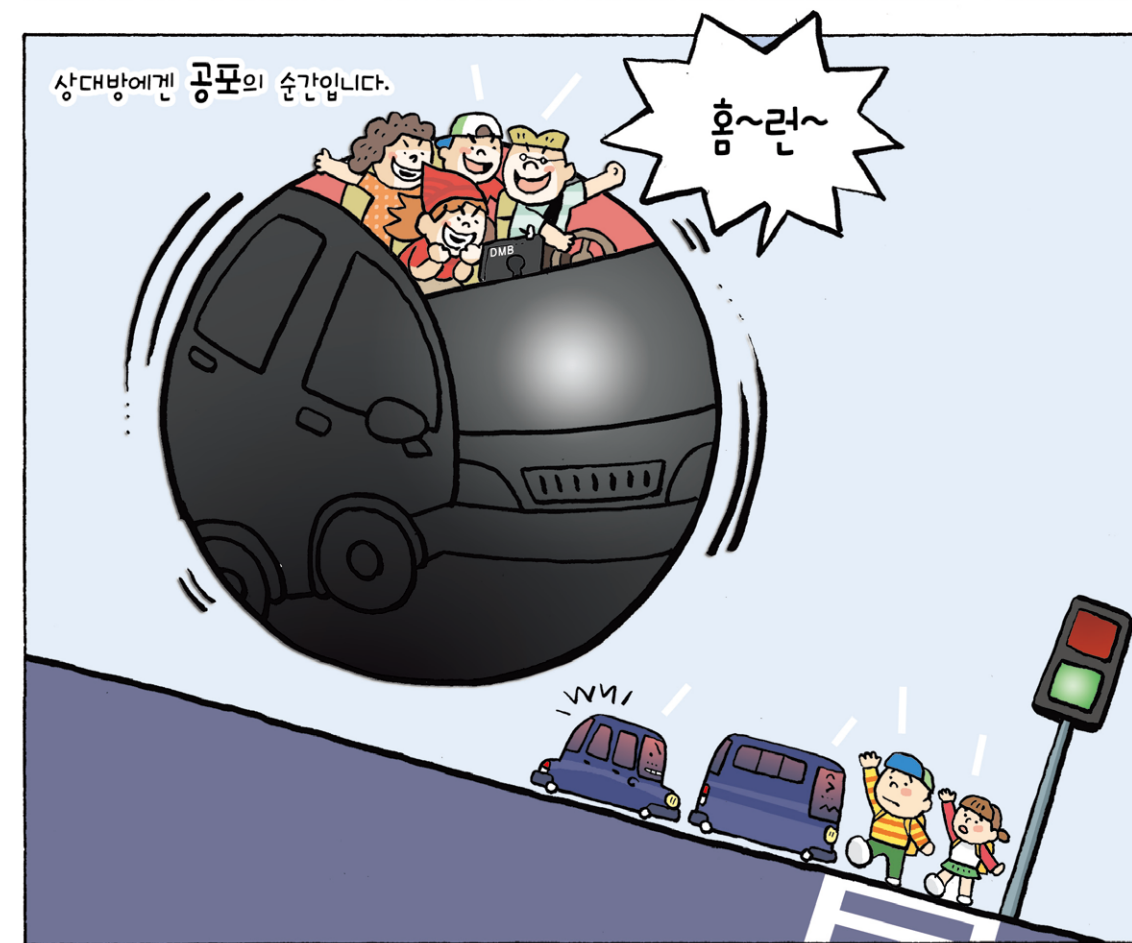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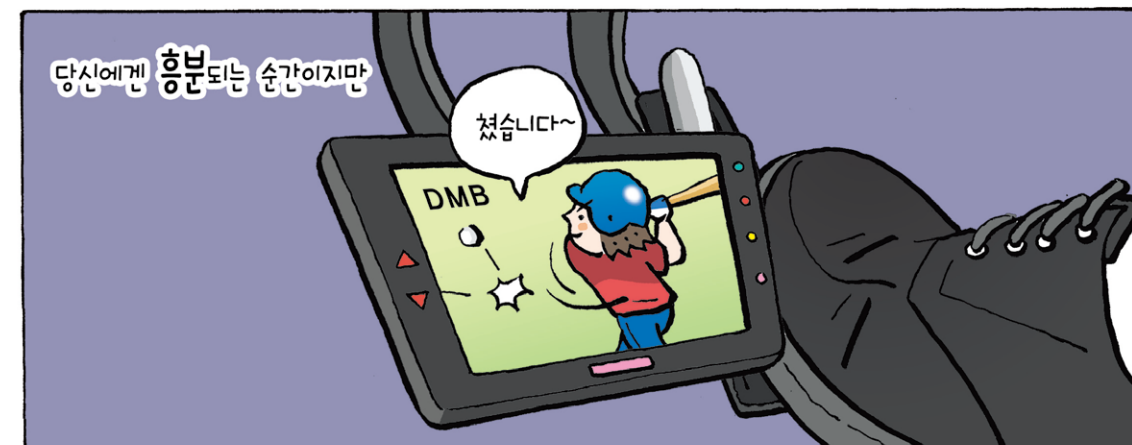
개봉 5월 24일

5월 둘째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4월 29일~5월 5일

	곡명	가수
1	Twinkle	태티서
2	나혼자	씨스타
3	너뿐이야	박진영
4	찢긴 가슴	아이비
5	복숭아	아이유
6	벚꽃 엔딩	버스커 버스커
7	다른 사람 품에 안겨서	박진영
8	Volume Up	포미닛
9	She's Gone	디셈버
10	눈감아줄께	블락비

멈추세요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운전 중 DMB 시청을 멈출 수 없다면 차도 멈출 수 없습니다.

가정은 사랑을 가르치는 교실

일러스트 · 이철원

내가 학교에 다니던 1960년대에는 중학교도 입학시험제도가 있었다. 시험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사립문에 들어서는데, 우물터에서 어머니가 기도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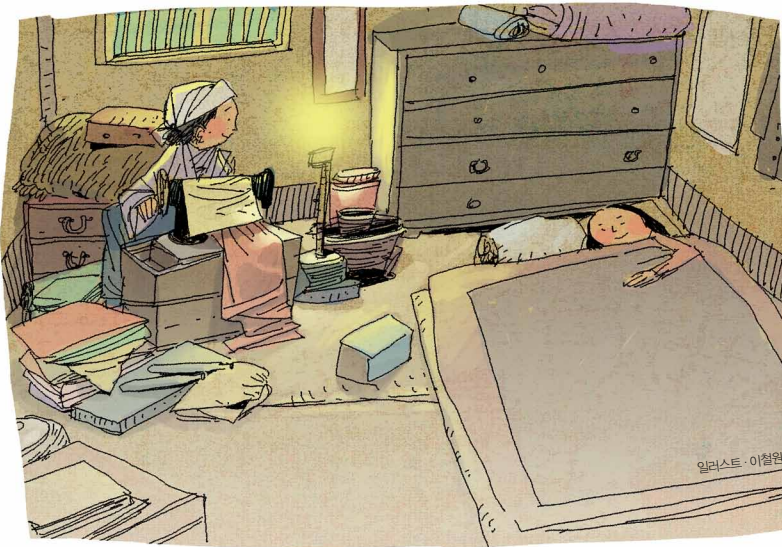
“용왕님! 제발 우리 딸아이가 중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숨소리를 죽이고 들어보아도 “제발 불합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합격하여도 입학금이 없어 학교에 보낼 수 없다고 차마, 어미의 입으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이듬해 오월이었나 보다. 수업시간에 창문 밖을 내다보니 라일락 나무 아래, 연보랏빛 한복을 입은 어머니가 서서 두리번거리고 계셨다. 그때 어머니가 건네주던 노르스름한 편지 봉투를 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때는 철이 없어서였겠지. 봉투 안에 든 돈을 행정실로 가져가는 발걸음이 어찌 그리도 가벼웠는지. 그리고 남은 잔돈으로 친구들과 교내 매점에서 사먹은 도넛은 또 어찌 그리도 맛있었는지.

하교 후, 집으로 돌아와 바느질하는 어머니의 왼손을 보았는데 결혼반지를 빼낸 손가락에 하얀 자국이 선명했다. 그제야 나는 월사금이 많이 밀리던 즈음에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짧아지던 생각이 났다. (그 시절엔 가발사업이 수출품목 중 꽤 큰 비중을 차지하던 때라, 머리카락을 사러 마을로 돌아다니는 상인이 있었다.) 그 돈으로 나는 간신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훌륭한 사람도 되지 못했고 부자도 되지 못했다.

스승의 날이면 어머니가 가장 먼저 떠올라

또 이런 기억도 있다. 초등학교 다닐 때였다. 멀리 돈 벌러 가셨다는 아버지는 종종 소식이 끊겼고, 어머니는 밤새워 한복 바느질을 해서 생활했다. 우리 집은 늘 쌀을 조금 넣고 나물밥을 지어먹곤 하였는데 어머니는 쌀이 많은 쪽을 골라 도시락을 싸주시곤 하였다. 그 귀하디 귀한 도시락을 나보다 더 가난한 친구의 옥수수죽과 바꿔먹고 돌아오면 “잘했다. 반장이면 어려운 친구를 보살필 줄 알아야 한다”라며 칭찬하셨다.

지금은 우리나라 개인소득이 2만달러가 넘고 다른 나라를 도우며 살고 있지만, 그 당시는 6·25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던 때라 끼니 때만 되면 깡통을 들고 찾아오는 전쟁난민들이 있었다. 어머니가 싫은 기색 없이 따뜻한 나물밥을 한 주걱씩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 형제들은 자랐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나는 어떤 선생님보다 어머니가 먼저 생각난다. 부모는 인생을 가르치는 스승이고 가정은 사랑을 가르치는 교실이다. 교실과 스승은 불가분의 관계인데, 요즘 내가 일하는 산골 초등학교만 보아도 도시에 사는 부모가 이혼하고 시골 할머니집에 맡긴 어린이들이 상당수 있다.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지만, 가정의 소중함은 영원히 변해선 안 되는 것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건 과학보다 예술보다 사랑이다. 사랑은 가정이라는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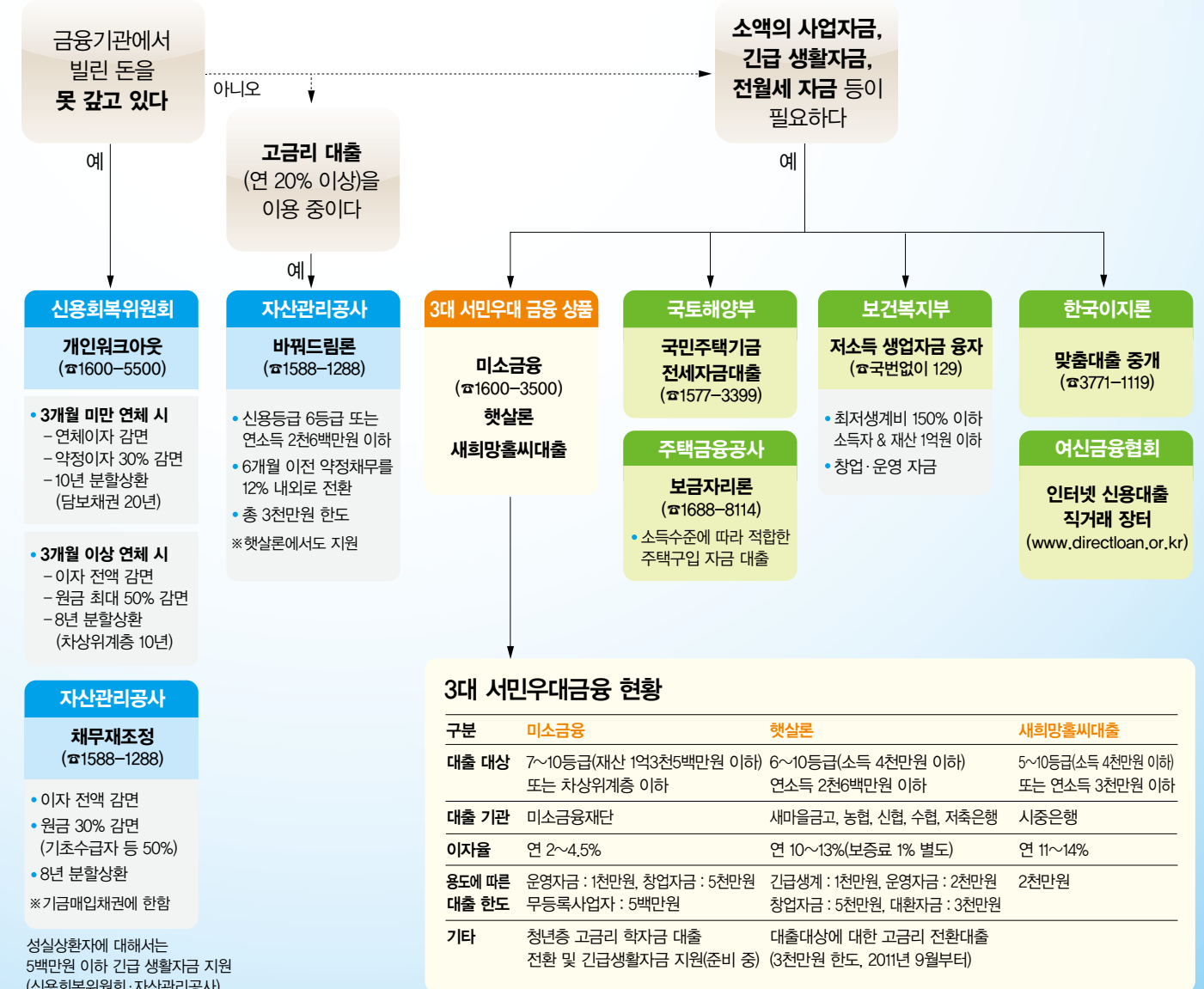
그 시절 어느 어머니가 그리하시지 않았을까마는 자식을 먹이느라 자신은 늘 배고팠을 나의 어머니, 자식들 주려고 아껴두었다가 상한 음식을 물에 씻어드시던 어머니, 말년에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오월이 오면 약 한 첩 지어드리지 못했던 것이 못내 가슴 아프고 어머님 연보랏빛 한복이 생각난다. 사람이 죽어서 꽃이 될 수 있다면 아마, 어머니는 라일락꽃이 되었을 것 같다. G

글·유금옥 (시인)

당신에게 꼭 맞는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찾아보세요!

3대 서민우대금융 현황

구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대출 대상	7~10등급(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6~10등급(소득 4천만원 이하) 연소득 2천6백만원 이하	5~10등급(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대출 기관	미소금융재단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저축은행	시중은행
이자율	연 2~4.5%	연 10~13%(보증료 1% 별도)	연 11~14%
용도에 따른 대출 한도	운영자금 : 1천만원, 창업자금 : 5천만원 무등록사업자 : 5백만원	긴급생계 : 1천만원, 운영자금 : 2천만원 창업자금 : 5천만원, 대환자금 : 3천만원	2천만원
기타	청년층 고금리 학자금 대출 전환 및 긴급생활자금 지원(준비 중)	대출대상에 대한 고금리 전환대출 (3천만원 한도, 2011년 9월부터)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2012.4.18~5.31)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고금리사채나 채권추심, 대출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신고해 주십시오.

- **전화** 국번없이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 ☎120(서울·부산·인천·경기)
- **인터넷** 금융감독원(www.fss.or.kr) 또는 경찰청 신고민원 포털(cyber112.police.go.kr)
- **방문접수**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부산·대구·광주·대전), 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